朝鮮産業調査會開會에際하야

(四)小農保護

朝鮮人本位의産業政策을確立하라함은 朝鮮人全體의要求함이어니와 朝鮮人中에도 少數의有産階級의利益을目的하지말고 一般多數民衆의幸福을 目標로하며本位로할것이다 卽工業에도勞作者本位, 農業에도小作人本位라야 農村의平和를失치안코 民變向上의障礙物되는貧富懸隔의弊害를除去할것이다

商工業의發達도 農業으로基礎를삼는朝鮮에서는 農業에關한各般施設은勿論, 于先小作人을保護함으로써 眼前에급한것이라 못할것이다 羅馬滅亡以前로마는奴隷와 露國의時代에는 農奴라하는것이有하야 貴族되는大地主의奴隷와犧牲이되야 虐待와壓迫을受함이 其極하얏더니 로마노帝家及貴族의殺戮을行하고 共産主義의露國으로化한것은 畢竟此의激烈한反動인것이明白한中 그런되朝鮮의小作人도此와近似한點이多함은 可掩치못할事實이라 樂歲에는終身苦하고 凶年에는死亡을免치못함이朝鮮小作人의窮狀이오 無理히小作의血과汗을吸取하야 年々히耕地를買占하며 廣厦高閣에서錦衣玉食의豪華한生活을하는者는朝鮮의大地主라 由來의慣習上小作料의 指定制度는豐年에는幾分의餘裕가有하다하야도 其代에米穀價가低落함으로因하야 所得이別無하고 凶年에는 至로허二三處의小作料를合하야一處의小作料를補充치안이치못할境遇에至하되 地主는凶作豐作을關치할바ㅣ안이오 半作制는稍히小作人에게有利하나 大槪는 凶豐을不問하고 小作人된者ㅣ農糧費에消盡하고他의債務를辨償하라면 子는 饑餓를訴하는悲境에陷하도다 그러나 地主된者는此를하려不足을告하는同時에 收穫을終了한當時브터 발셔父母妻子를保護救濟할觀念이업시 富益의方面으로만向하야가는一念뿐이다 換言하면自己의富力을增進케하는小作人을無視할뿐안이라 甚하면壓迫과虐待를加하야 契約不履行의口實或은舍音農監等의居中作奸으로 耕作地를無理히返奪하는弊가往々하다 이것이大多數의小作人을保護치안이치못하겟다는結論에到達하는理由인되 今回産業調査會에提出할臨時朝鮮人産業大會의建議案中小作人保護의一節을摘記하면(一)小作人組合法을制定하되一定한地域內에在한小作人으로하야금 共同團體를組織케하고土地生産力의增進과 農産物의改良을圖케하는同時에 地主와小作人의利益分配方法을改善하고 生産物의販賣及肥料, 農具其他日常必要品의購入을共同的으로行할것(二)法律로써小作權의存續期間을 適宜히定하야其地位를鞏固케할것(三)法律로써收穫에對한小作料의最高率을定하야 利益分配의公平을保케할것(四)小作人으로하야금 可能의最高限까지 土地所有權을獲得케하기爲하야 特殊銀行으로하야금 資金을融通케하고 土地의收穫中으로브터 年賦償還케할것(五)小作人으로하야금農業經營을容易케하기爲하야特殊銀行又는金融組合으로하야금 個人或은動産의信用에依하야 資金을融通케할것(六)官有地를買却하는境遇에는 반다시其土地의小作人으로하야금 此를獲得케하기爲하야 特殊銀行으로하야금資金을融通케하고且土地의收穫中으로브터 年賦償還케할것이라하얏고 又維民會의建議書中此에關한者는 地方實地의民情에 比較的精通한各面長과 有數한 團體並地方人士가자署名으로認할만한智識階級의個人의意見을綜合한것인 (甲)地主小作人間의分配에對한意見으로는, 地主四割, 地主三割三分, 收穫物의折半, 小作料代金施行(乙)其他小作人救濟에對한意見으로는 定期小作標施行, 地主로브터農牛農具貸付, 低利貸付, 小作人組合設置, 共濟會設置, 舍音(農監)廢止等案이提出되얏스니 大體의意見은 大同小異한者로 別로히懸隔이無하야 朝鮮人全般의意見을代表한것인즉 農業政策을確立하는時는 반다시此意見에徵하야 農業의本位되는小作人을保護함으로써主眼을삼지안이치못할것이다

聯省自治의趨勢(三)

江蘇省南通州에서發生한自治의聲이今에南北을風靡하야政客武人々지도此를贊同하야保護의色彩를帶함은前述함과如한故로自治는中國의大勢오民意에適合한者라思치안이하면不可하게되얏다 從하야此에共鳴하는人等은省治는聯省卽聯邦組織의前提라하야此를渴望한즉中國은政治上中心權力이事實上消滅되고一種의分解作用이自治의型에依하야行하다 自治는袁氏失脚以來로旣히胚胎된것이니 畢竟武力討伐에依한統一은現代中國에는絶望이다 中國의山河를左右하던袁으로도總統이되야失敗하얏거던況且袁에不及하는武人政客이리오且地方은地方民意에依하야國政을施行하면足할것이오中央에過大한權力을附與하는事는無益할뿐안이라晩近의經驗에徵하야도國家가無限의損害를被함을可知하것다 中國은先히地方分權을確立하야個々의機能을充實치안이하면不可하다 更히有利한事는中國은帝政時代에在하야도地方自治의政治를採用한故로人民의自治作用에關한理解는顯著하다 中國은亞細亞自治制의歷史的이다 中國은智識을持치안이하얏슬지라도旣히一個自治國이다 中國民族이古來外敵에게侵略되얏스나益々繁盛한것은此理由에依한者로思한다 自治의前途는樂觀하기可하다는此見解는觀察에依하야得한判斷이안이오 寧히希望이다 中國은自治를基礎로하는聯邦制度를採用치안이하면不可하다云하는願望에不外하다 中國이帝政時代에서도自治를行하얏다云하는解釋에至하야는世人이多數傾聽하는바이나此도容易히首肯키不能하다 中國을聯邦制로導하는事의可否는別問題어니와此에는主로自治의實情을考察코자한다 次에『省』과自治機能의關係에就하야中國의省과合衆國의『州』를類似히思하는者가有하나 此는甚한 誤解다 合衆國의『州』는各地各別의植民地에因한會社組織으로胚胎되야遂히州法을作成하게되얏다 合衆國은畢竟多數株式會社의總公司라見할기可하고 總公司되는中央政府의威力도州法을左右하기不能하는바안이라司法과如한者를見하면州審으로써終結됨이一般法이나 將來歷史가久遠하면如何할지不知하나今日의合衆國은州의連結한架空的國家에不外하나 中國의省은全然此와相反하니其順序는『省』이라는名이明白히此를說示함이 『省』이라云하는者는『行中書省』의略稱이다 元代에는外國의內務省과相當한中央最高官衙를中書省이라云하고各地方에分省을置하야『行中書省』이라云하얏다 畢竟中央은地方統治의便宜上地方을分割하야此를省에統屬케한者인故로『省』은中央의分身이라云하기可하고地方人의物이라는意味로는認치안이하얏다 明과淸朝時代에도亦然하얏다 省의長官은政府가此를任命하야此에는一時的差遣의意味를附하고實官卽中國에서云하는『缺』이라는性質을與치아니하얏다 淸代에는省의長官은總督又는巡撫라하고其下에今日의省長과如한布政使가有하얏고此巡撫와總督은반드시中央官衙의一員卽尙書兼左右都御史의職責을帶치안이하면不可하얏다 總督巡撫는由來官名은안이엇다 外國人은此等의消息이不明함으로總督等을呼하되副王이라하나此는誤解다 畢竟省은其長官과共히中央差遣官의官衙를指하고人民의側에는議會도無하고自治制度도無하얏다

如是我觀(一)

人生觀

周方山人

人生은一切平等인것이라그平等이안일것갓흐면이것은곳人生된本分을取消하는것이라 帝王家도神은안인것乞丐者도禽獸가안인것이라 다만同一한이世界에와서生存權을付托함이라 例컨되 旅舍에서寄留하는旅客과갓다할지니 더옥適當하도다엇던한旅客이던지그寄留에는반다시自由가잇는同時에도라서拘束도업는것이곳原則이라 그럼으로오는것도自由라할것이요 가는것도亦是自由라하야何人이던지그往來를干與치못할지니 이와갓흔人生世界를吾人은곳逆旅이席이라하야 一切그自由와平等에解放코저함이卽人生觀에主張하는바이며또한希望하는것이라

○

現代十七億의人生界에國際政局에立하야風雲을左右하는政治首腦者도各其一人의人格만잇슬것이지決코二人三人의資格을兼幷치못할것이요過激派의赤化的洗禮를受하야流離乞丐이된露士의殘民도또한半身이나半分의人格만잇는것은안이라前者의風雲的幸運兒와및後者의慘敗的不過客도同一한十七億人類中에一人이될것은事實上否認치못할뿐안이다 吾人의人生觀을主張하는最要點이此에存在함을決定하얏도나同時에決코人生의運命論을發業함이現代에가장必要하다하노라 大抵不幸이라幸이라하는運命論을高唱할것갓흐면世間에何者가兵士가되여戰爭을是事할것인가 戰爭이라는것은彼의게幸이되는反面에我의不幸이되는것이라 換言하면彼가死하면我가生하고我가生하면彼가死하는極端競爭에 生命을 賭하는 最大不幸이안이라云치못할것이로딕此亦國家의兵士된義務를願念함이요陸海의使節을掌하고國際舞臺에立하야世界로더부러成敗를輪贏하는者도그國家에柱石된것을爲함이라 然則國家에나社會에나一人된것으로보면總理大臣과一個兵士나秋毫도다름이업슬것이요 나만地位의大小가잇다할지언정其人의義務는一般될것이라이것을推하야볼지라도人生은平等이요決코差別이잇지못할이當然하도다

○

그럼으로져春에花하고秋에落葉하는草木의大自然을見하라或은王公富貴者의庭園에立하야金枝玉葉의尊榮을共享하도잇고或은深山窮谷에樵人牧客의蹂躪을受할수도잇스나春의花와秋의落葉이될것은一般의運命을避치못할지라草木에도이와갓흔大自然이잇거던하물며人生에야그엇지宇宙間의自然的平等이업다하리요 그러하고春花秋葉의衰盛을가지고人生의宿命論을主張치안이하노라人生의生存을是認하는自由와平等은그神聖한天賦에得한것이지마는其他의榮枯盛衰에長短과高低가生하는것은한갓運命論에付하야人生觀의背景이될지로다要컨되大厦高堂에食前方丈으로日食萬錢하는者와垣堵蕭然에三旬九食을難繼하는者의貧富가顯著한것은勿論이로되다만그人生의幸樂은그엇지다름이잇슬가 一枝에서春光을謝하고落花가되엿스니一片의花는幸이綿繡席에떠러지고一片花는不幸이汚泥에떠러젓다그러나그花의根本은곳同一한根幹과枝葉의間에셔大然의雨露와自然의開謝를經過한것이라

○

하물며人生의自然에야엇더한榮貴에엇더한貧賤에限하야人生의人本을論치못할것이라換言하면宇宙間의事物은總히人生의存在를爲하야그것이잇는것인즉萬一人生이안일것갓흐면世間의何物도完全한機會를得치못할것이라하야그宇宙의光榮을統一한者는곳人生이안이라云치못할니또한人生觀의大義라하야吾人의主張을是認치안이치못할것이라 英雄와乞丐도다人生이라하야그運命論에는全혀特別의問題가될것이라韓信의一生을見하야도袴下의屈辱과城下의飯은그不幸의時에處함이요百戰百勝에月桂冠을得할時는幸運을遭遇한것이라그럼으로人生은平等이라함이곳宇宙間에大自然이라할것이요一生의窮達은運命論에付할것이可하다하노라

奇怪探偵小說 813

雲波譯

第一回 虐殺(五)

一 奇怪한來客(五)

『하오ㅣ』하고 그男子는우셧다

『그러나그듸의『피스토ㄹ』에는空氣만들엇ㄴ냐?』 웃지하야 쇠리가업나ㅣ』

두번 세번이ㄴ나방을쇠를자바단이는쇠리가들이엇다 그러나銃聲은조금도업섯다。

『오죽도세방이ㄴ남어잇셔ㅣ 케에 日포트王ㅣ그되게 여섯방 彈丸이다나의몸의命中하시오코셔야나는無事할것일세왜그러ㄴ냐그만둠녀ㄴ냐ㅣ그러면未安한결으ㅣ』 이奇怪한來客은두구이며 케스루팟바가恒常身邊을念慮하야 彈子를들입업시저여둔『피스토ㄹ』의彈子는엇지하야업서젓슬가ㅣ

그怪異한男子는엽헤노혀잇는椅子를돌녀놋터니말타듯시가로타고안젓다。 그런後에『케스루팟바』의게 安樂椅子를가리치며

『자오 그곳에좀안지시오、이곳은宅과가치알고게시지요 다이사람외지近念하실것업지 卷煙草말슴임닛가…안이올시다 요만은ㄴ노本來葉草만것을조와하니가』

테블우헤노혀잇는呂宋煙匣을열어한개ㄱ어피여물엇나그는몸을支拂하고서는地下室도니러

『래여바리엿지요』

『야아ㅣ거짓말마러…』怪男子는怒한눈으로『케스루팟바』를집어삼길듯이바라보며

『昨日그되는 伊太利人市街의『리온』銀行에갓섯지…外套안에무엇을사셔각추어들고말야그러하야그되는倉庫를빌지안엇다…더욱자細히말할것가트면 九號室十六號倉庫이지ㅣ글노부터署名을한後金額을支拂하고서는地下室도니러갓섯지그後그되가올녀올케는보통이는업시오지안엇나…말이ㅣ分도틀림업지…』

『果然그럿소』

『그러면적은箱子와手袋는『리온』銀行에잇지…』

『안이ㅣ요』

유창히 퍼번셔

『感謝、고맙습니다。念慮를話함 烟草는걸니요 그러면한마듸말삼으여쭐가요、엇덧든지요』

『케스루팟바』는그怪異한男子가眼鏡업시짓거리는말을精神업시듯고잇나알수업도바이다 이奇怪한男子는ㅣ그러나그怪男子는미우沈着한듯으여보이고別로自己의게害를끼칠듯한念慮가업서보인다 케스루팟바는포케트에서紙匣을쯔녀여피드니紙烟를피들쯔니여들엇다

『얼마만되면조흘가요ㅣ』

그男子는이모쇼를무삼卦인지알수업는듯한態度로그것을바라보고잇더니

『말크야ㅣ』하고불넛다

케스ㅡ팟바ㅡ는門前에셔놀너든피스톨을쥐인男子가들어왓다

『말크야이令監의서자비 情婦를위하야쓰라고이조히뭉지를자비에게주시는것이니빗어두는것이조흘듯하에』

『말크』는그의右手에는피스토른을단々히쥐이고右手를ㄴ미러그紙幣뭉지를빗어가지고나갓다

『有意한신듸로그일은 그만칩되여주던』怪男子가이갓치말하엿다

다시말을곳치여『너가이곳에온目的을말삼하지요簡單明瞭히말하자면나는두가지에物品을欲心내고들어온것이요卽그듸가恒常가쥬고잇는…검은모로크革製의적근手袋요또한昨日그듸가旅行가방속에ㄴ黑檀의小箱子이요그러면順序的으로進行합시다첫되로모로코革製에더은手袋는…』

『되여바럿지요』

그怪男子는혼잣말을집하듯그는暫時默々히잇셧다그의頭腦에는만흔手段을潛伏한듯하다

그러면할수업지 그것은也亦말하려니와그다음黑檀의小箱子는…』

『그倉庫에잇슬뜻노앗소』

『안되지요』

『말크야ㅣ』

말크는뛰여드러왓다

『애녀크야이놈을단々히 結縛하여라』

구르도록、케스루팟바는손한나꼼닥업시발셔結縛되여잇다 그의미인은살의피부스치로록단단히졸나미여지고그의누팔는뒤로져체져서上膊는安樂椅子에結縛되고 그의두다리도한테모하노은으로칭々감엇든

『말크야그놈에몸부터뒤져라』

말크는『케스루팟바』의몸을뒤지기始作하엿나ㅡ分도못되여그는『十六』『九』다고番號가記入된열쇠를ㄴ내엿다

『올다ㅣ그것이다 그러나보르크手袋는업니ㅣ』

『업슴니다』

『그러면그것은 倉庫의돈 것이지 그러치『케스루팟바君ㅣ그런ㄴ그잘들쇠를여은符號를가리켜쥬게』

『안되지요』

『안되여ㅣ』

『그러치요』

『애「말크」야ㅣ』

『비ㅣ』

『피스토루을 이令監가슴에되여라』

『비에ㅣ』

詞藻

康寶 散人

海倉出發

海倉遙望素湖津 送別人多遠別人 好是觀光千里地 一朝雨洗渭城塵

過花源向木浦

纔過花源欲問津 漁舟又是異鄕人 車來我亦非常客 偏遠靑山不染塵

過夢灘驛

捨舟直上列車待 刊任城日欲斜 雷擊風馳心轉疾 樹飛山走眼生花 硝烟窣閉二淵穴 墨突蒸成一綱霞 陸覺夢灘江上笛 日鷗飛去水茫沙

夜泊松汀向光州

黃昏一路到松汀 千戶燈明萬點星 自動車飛人似鶴 翻々得過海山靑

與石蔘與官唱酬

十載題名一日同 白頭傾蓋話匆々 曼卿飛去風流在 留取淸音樂府中

秋夕 晩村 張基元

一年秋夕最佳辰 百果登盤物色新 月滿家々人盡醉 歌何人是哭何人

內外倂呑

▲孫總統은吳佩孚를討伐하기爲하야聯合軍을組織하고動員令을下하얏스니孫吳兵法이如何

▲米國은佛國側의主張하는第三國際條約締結을不必要하다認하얏스니兩國感情은倘或無害

▲墺國은聯合國承認을得하야軍隊를東方國境에集中하고洪水와갓치進擊하니孰勝孰敗를難可測

▲塞爾維의商業學校學生으로墺地利皇太子를暗殺하야歐洲大戰爭을惹起하얏고

▲巴威는商學生은에츠베게를暗殺하야勞働者示威運動을起케하니商學生과暗殺은亦一奇緣

▲路威는稅金收入을爲하야禁酒法廢止說이有하니嗜酒者는歡喜할지不知하나無錢은亦奈何

▲日本名大學은近來露國亡命客을招聘함으로敎育上稗益이甚多하니露人의不幸은日人의幸

▲三笠艦은破治產을防禦하라고急速航行하다가坐礁破傷되얏스니遠賊만思하고近賊은不思

▲新聞社는掛冠說이有하더니華府會議의臨迫으로留任되얏다니此會議의利益은新人가先受

▲英國은首相과海相이出席키難하고海軍卿도臥病함으로代表銓衡이困難云人物乏絶을可知

發行所 京城府 朝鮮日報社 電話 ... 編輯兼發行人 金容? 印刷人 ... 購讀料 ...

長鼓大賣出
長鼓 上品十三圓 中品十二圓 下品十一圓
但一竹에百五圓이오 地方注文에는送料先金을要함
京城鍾路二丁目六十番地
永信商店 主 柳寅永

廣告
朝鮮地理唱歌는紳士遊覽의遠足時의指南者也오東西偉人唱歌는發越人志하며化民導俗者也오樂園唱歌는薪水鼓舞하야순즉外交上必要함이라購覽僉彥은先金으로請求하시
定價 朝鮮地理唱歌 東西偉人唱歌 樂園唱歌 郵金 ...
京城鍾路二丁目三十六番地
廣文書市 鄭敬惲 告白
振替京城九六七番

內科 外科 婦人科 小兒科 花柳病科 (入院診察)
仁川府寺町一番地 (天主敎堂右邊)
順天醫院 院長 任賢宰 林在夏

梅毒 淋疾 神根丸
本丸藥에見效치못한人은六號及其他梅毒劑不久根治되는돌을服用
(定價)一劑五円半劑二円五十錢
本舖 京城積善洞 漢城藥館
振替京城六七三
先金注文이안이면代金引換이면郵料四十錢을切手로先送치안으면酬應치아니함

生存競爭場裡에서優勝旗를占領할者ㅣ誰?時間嚴守者!時間을確守하려면惜陰堂의正確한時計가第一!
時計
白銅片側치마正 寶石十個入 金拾圓
銀片側치마正 寶石十個入 金拾五圓
金時計 十五圓以上各種
其他腕卷時計眼鏡其他附屬品 精密修理
時計眼鏡及附屬品販賣修理
安洞四街
惜陰堂時計舖

滿天下紳士淑女學生諸氏시여最新流行式으로堅實美麗하고輕快한洋靴를求코자하시거든반드시本店에한번注文하여보시오

△花柳病者大福音
림질 매독 치질 부인병 金治藥
今其治療를苦로하는痛苦를當하시는不幸한者ㅣ多하도다 花柳病은一身으로一家를破滅할뿐아니라一民族一國家를滅亡케하는世界萬病中에第一우리人生에게苦痛을주는크게무서운病임으로本有田또락구商會에서는盡心盡力하야十數年來莫大한損害를不顧하고名手大家의神方을選하야全治完快의特效藥을許多한努力을드리여誠心誠意로研究한結果世界名藥의高貴한藥을擇하고名手大家의神方을選하야全治療法을無代로進呈하오니四海諸賢은本有田또락구商會花柳病專門藥房을多大히愛護贊成하시와주시기를伏望々々하나이다(地方은代金引換)但僞造(위조)또락구가多數盛行하오니有田또락구에五字를注意하시압
京城鍾路十字街電車交叉點
京城府公平洞八十八番地
有田또락구商會 ドラッグ 主任 車丙轍 告白
藥各七日分(淋疾藥三圓以上八圓 梅毒藥二圓以上七圓 痔疾藥四圓以上拾圓 婦人病藥五圓以上九圓)

羽根鹿印 石版 活版 用 インキ 製造販賣元
京城本町三丁目四〇番地
滿鮮インキ製造所 芹川傳藏

母論男女에아모淋疾하고東洋에第一靈藥은
림질 임질 五淋卽解
急性、慢性을勿論하고服用만하면거정엽소婦人赤白帶下에도神効함
定價 貳週日分 一圓八十錢 參週日分 二圓五十錢 郵送料三十錢加함
發行本舖 京城鍾路 共愛堂藥房 主 朴容祖
振替一七七三番 長電話一九三三番

代表的朝鮮料理
海東館
開 披 ?
京城 一三一 瑞麟洞八三番地 電話 二三八 五六七五番
三割引 新婚披露宴、家庭婚姻床、還甲宴、床 은從前의三割引으로不拘遠近하고迅速酬應하압
今番本人이海東館을引繼經營하게되온바元來本館은我朝鮮公會席料理店의嚆矢되난惠泉館의後身으로當初에出生이時代의要求임과가치今般에또改良을더하야時代의要求하난代表的料理店이되겟나이다
◎◎◎◎飮食의致誠 ◎◎◎◎設備의滿足 ◎◎◎◎酒品의精選 ◎◎◎◎奉行의親切
이러한것은勿論이어니와漸次美雅한裝飾과高尙한遊戲機關을完備하야公私宴會의機關으로盡善盡美함은勿論이오外賓招待와家庭慶宴에利用하시와반드시滿足한結果를엇으시게하겟나이다
鷄蔘湯 補元劑로極上品 鷄蔘湯을調製하압
館主 吳璉煥 白
自動車特設

開業廣告!
世界的文化는日進月步하고生存競爭은日々激甚하니實로優勝의旗를点得하도록活動할時期는來하엿도다 本店은滿天下同胞에게活動에便利하고經濟될洋靴를製造供給하야不足之歎이無하고僉位의愛護하시는厚誼에奉副하려하오니益々愛顧하심을伏望하나이다
(地方代金引換)
京城府鍾路四丁目三拾番地
洋靴專門 裕豐製靴商會

太平洋會議의 開會期까지

五大國代表決定

協議事項의 範圍는

米國々務省은 中國이 華盛頓會議의 重要한 部分되는 軍備制限會議에 參加치 아니홈을 發表한 故로 華盛頓會議의 主要部分의 協議에 參加할 國은 米、日、英、伊、佛의 五個國에 限局되고 中國은 다만 參考國되는 地位에 立홀 것인즉 中國의 利害에 關係되는 問題를 討議홀 境遇에만 其參加를 要求하게 되리라。從하야 協議事項의 範圍의 決定은 五大强國의 代表二千名의 手로셔 決定되겟고 和蘭及白耳義兩國은 極東問題의 討議에 限하야는 參加홀 줄로 思惟되나니 即 米國은 旣히 和蘭、白耳義兩國에 對하야 招待狀을 發하얏스되 다만 中國이 白耳義及和蘭以上의 地位를 保有홀 것은 勿論이오。有名한 新聞記者 데빗드·루렌스 氏는 如左히 語하얏더라(紐育電)

華盛頓會議의 主題는 軍備制限임으로 中國은 此除外에 對하야 抗議를 中提홈과 如한 事는 無하리라。即 會議에서 極東問題의 討議는 準備的의 性質을 帶한 故로 中國은 本會議에서 除外됨은 無理가 아니오 加之 中國의 利害에 關係가 有한 것은 各國 特히 米國代表에 依하야 十分保護될 所以이라

米國務省公式發表

極東問題의 協議會席上에는 中國도 招待되리라

米國々務省은 十三日公式으로 左와 如히 發表하얏더라(紐育電)

華盛頓會議는 要컨디 一個의 主要한 會議를 中心으로 하지만은 附屬問題가 多홈으로 分離하야 討議홀 必要가 起홀는지 未可知이라。然이나 主要會議는 軍備制限或은 極東問題와 如한 것을 悉皆包含한 事는 無論이오 右는 個使主義를 取하는 大統領 하-딩 氏의 意向에 基하야 決定된 것임으로 主要會議參加國은 日英米伊佛의 五個國에 制限홈도 또한 個使主義에 由홈이오 極東問題協議의 際는 中國、和蘭、白耳義의 三國은 該協議會의 席上에 招待되리라

對米情勢

愛蘭對英絶對獨立主張

『데발레라』氏回答內槪

愛蘭假大統領『데발레라』氏의 英國首相『로이드조오지』氏에 對한 書翰은 『다부링』에서 公表되얏는디 即如左하더라(倫敦電)

余는 如何히 하면 愛蘭은 愛蘭의 國家的理想과 相容되는 範圍에서 英帝國이라고 見稱하는 國民의 一團體와 相交홀가 可能홀가 홈을 的知키 爲하야 進하야 『로이드조오지』氏와 會商을 開홀 意思가 잇는 事를 宣明함에 躊躇치 아니하노라。『싱페』黨議會는 九月二十日을 期하야 『인바네스』에 開催될 會議에 出席케 홀 代表者를 承認케 하기 爲하야 召集되얏도다。余는 此最後의 書翰에 余의 義務로 次와 如히 다시 確言하노라。『愛蘭은 其獨立을 正式으로 宣言하고 愛蘭으로셔 主權國으로 自認하노니 且被選된 護國者는 如此國의 代表者로만 行動홀 權限을 有홈』云々

英愛再會商破裂

英首相會議取消를 聲明

英國首相『로이드조오지』氏는 愛蘭假大統領『데발레라』氏가 愛蘭의 獨立을 一向固執하리라는 見解에 依하야 二十日開催홀 터이든 인바네스會議를 取消하얏더라(倫敦電)

印度南部의 騷擾 (三)

各地人心은 今猶恟々하다고

南部印度地方의 擾亂은 今猶終熄되지 못하야 千二百의 叛徒는 미와口부에 防禦홈과 共히 各地에 大規模의 掠奪을 行하라는데 叛徒는 『발가드』에 大襲擊을 試코저 脅迫하고 잇스며 『포오나』에서는 百名의 叛徒가 捕縛되얏는데 其中에는 非協同派의 頭目도 包含되여 잇고 『카리카스드』에서는 軍隊의 警戒가 弛緩하면 叛徒는 又復擾亂을 開始한다는 風說이 藉々하고 尙且『모프더스』族內에 刑의 宣告를 受한 者 一四百五十名에 及하며 各地의 人心이 忩々하야 擧皆業務를 放擲하고 잇다더라(孟買電)

印度形勢益不穩

印度의 叛徒 三千名이 『엘낫드』地方에 集中하야 不穩한 形勢가 有하미 事態가 자못 重大홈을 報하더라(倫敦電)

獨議會對米和約批准

獨逸議會는 米獨講和條約을 批准하얏더라(伯林電)

君府排外陰謀發覺

土都首府 君斯坦丁堡에셔 同盟軍에게 危害를 加홀 目的의 陰謀를 企圖한 陰謀團이 發覺

되얏더라(倫敦電)

中國政局

北京內閣의 動搖

靳總理가 辭表를 提出한 所致로 內閣이 動搖하미 徐總統은 挽留策에 苦心中이더라(北京電)

顏外交總長辭職說

外交總長 顏惠慶氏는 山東問題에 關聯하야 辭職한다는 說이 잇더라(北京電)

直接交涉에 反對

山東問題에 對한 中國各省의 態度가 依然히 直接交涉에 反對하나 米國의 論調에 依하야 態度가 一變하리라더라(北京電)

山東問題

中外各紙의 報道及論評

◀紐育『타임스』紙는 報道하야 日 若中國이 山東問題에 關한 日本의 提案을 承諾하면 米國의 調停을 待치 안코 問題는 玆에 完全한 解決을 見하게 될 시나 若中國이 承諾지 아니하면 結局 華盛頓會議에서 米國이 其解決에 助力하게 되리라。米國々務省은 不久에 或種의 行爲에 出홀 必要가 有홀는지 未可知라 하야 目下 山東問題를 硏究中이지만은 假令 國務省이 如何한 行爲에 出홀다 하더라도 關係國의 感情을 害홈과 如한 性質인 것은 아니라云々

尙且『타임스』紙의 所報를 據한즉 華盛頓政府는 日本의 山東에 對한 權利는 『베르사이유』條約에 依하야 獲得한 合法的權利인 事를 承認하는 故로 日本에 對하야 調停은 極其友誼的일 것이라 云하고 同時에 『타임스』紙는 一九百十五年五月十六日附 兩國에 遣交한 米國政府의 通牒을 引用하야 注意를 喚起하얏는데 其通牒에는 『米國政府는 米國並米市民이 條約에 依하야 確保한 諸權利와 中國의 不分割及門戶開放主義를 毀損하는 如何한 條約々지 承認치 아니홈』이라고 明記하얏바 米國政府는 今外지 此保留條件을 放棄한 事는 無하다云々(紐育)

◀十三日의 紐育『이브닝·포스트』紙는 如左한 社說을 揭載하얏더라(紐育)

中國은 左의 二理由에 依하야 拒絶홀을 豫期하는도다 (一)日本의 山東還附提議의 裏面에는 還附以外에 不當한 要求가 包藏되얏슬 듯한 疑點이 有한 (二)假令中國이 日本의 山東還附提議를 其儘接受하더라도 一方으로 中國은 山東問題를 華盛頓會議에 提出홀 希望이 有한지라 目下北京政府는 東京政府와 山東還附問題에 關하야 交涉한다 하더라도 該問題는 華盛頓會議에 提出홀 程度外지 交涉을 妨害홀 程度에 至치 아니홀 줄로 思惟되는도다。今也 華盛頓會議는 僅히 二個月을 隔한 것인데 此間에 中國은 日本의 眞意가 那邊에 在한가 홈을 知悉하고 또 萬一 日本政府와 直接交涉이 可能한 것 갓트면 中國은 더옥 時機를 乘하야 華盛頓會議의 席上에셔 中國은 山東還附問題에 關하야 到底히 日本의 提議에 應하기 어렵다는 旨를 言하리라

△十六日의 英文北京導報는 如左히 論하얏더라(北京)

日本은 主權의 還附를 云々하면서 經濟利權一切를 保有코저 山東省各都市의 開放을 要求하고 山東鐵道延長線、烟弁鐵道優先權讓步、稅關還附等은 公平한 提案이지만은 結局日本의 條件은 門戶開放策에 違反하는 것이다云々

◀又交通系機關紙太平洋은 如左히 論하얏더라(北京)

日本은 中國을 第二의 朝鮮이 되게 하라는 것이니 今回의 提案에 據하면 中國의 領土가 될 山東은 其處置를 何事인가。山東鐵道合辦、日中委員會組織과 如한 것은 山東合併으로써 日中合併의 先驅를 作코저 홈에 不外하니 政府는 直히 交涉을 拒絶하라云々

所澤長春間飛行豫算十萬圓

所澤、長春間의 大飛行은 其準備가 幷捗하얏슴으로 二十四日所澤을 出發하기로 決하얏는디 其豫算은 十萬圓이라더라(所澤電)

盲目詩人動靜

先是에 日本에서 放逐되야 浦鹽에 滯在中이든 盲目詩人『에로시엔코』氏는 最近哈爾賓에 來하야 當分間同地에 滯留하야 日本放逐後의 日誌及勞農西伯利感想錄等을 脫稿한 後 上海方面으로 向한다더라(哈爾賓)

大連會議

第二難關은 日本撤兵問題에 亘在

大連會議는 엇던 重要問題에 關하야 各其政府의 訓令을 仰홀 必要가 잇다고 豫想되야 十三日以來로 休會하얏는데 本週中은 再開될 形便이 업고 智多政府의 提出한 二十九箇條에 對하야 日本代表者로부터 六箇條는 原則的條項인데 通商協定에 入하기 前에 諒解를 得홀 必要가 有하다 하야 審議를 行하얏는데 其間의 消息을 聞하면 日本側의 提出한 六箇條의 修正을 提議하고 兩代表는 撤兵에 對한 態度及事項이오 日本撤兵에 對한 態度에 關聯한 것이라 各方面의 六箇條에 對한 臆測은 大體上日本의 提議骨子는

一、撤兵問題에 關한 修正提議

二、日本의 旣得權을 繼承케 홀 提議

三、通商問題에서 機會均等門戶開放主義에 立할 事

三箇條를 基礎로 삼고 浦潮要塞의 件、關稅의 根本改正、沿岸黑龍江의 航行權、漁業森林、鑛山開發에 關한 問題와 如한 第二義의 問題도 取扱되는 中 今回會議를 休憩하고 政府의 訓令을 要求하고 잇는 問題는 實로 撤兵에 關聯한 것이라 智多政府의 提議條項中에는 通商開始以前에 日本軍의 撤退를 要求하는 箇條가 잇는 바 極東共和國領土內로부터 日本軍의 撤退를 要求하는 箇條가 잇는 바 連州와 如홈도 極東共和國領이 되야 잇슴으로써 問題는 자못 重大한지라

日本側은 現在薩哈連州의 ...

維民會建議書 (七)

産業調査委員會에

第一 現에 朝鮮人의 經營에 係한 産業機關으로 資本의 缺乏으로 因하야 營業繼續難에 빈한 者에게 國家로셔 特別補助를 與홀 事

要旨 上述과 如히 先年財界好況에 伴하야 日復日簇出한 各種會社는 不意에 重要物價의 暴落에 際하야 商業者의 手持商品에셔 莫大한 損失을 蒙하고 工業者는 注文品受取拒絶에 依한 滯貨激增으로 因하야 亦多大한 打擊을 受하야 商工業者는 모다 或은 支拂停止或은 休業整理等 極其不安定한 苦海에 沈淪되고 其他企業者에 在하야도 商工業者와 同樣의 悲境에 陷하야 一般朝鮮人事業界는 거의 奔潰와 如히 容易하게 收拾치 못홀 紊亂狀態를 呈홈에 至한지라 凡一波가 亂하미 萬波가 從홈과 如히 事業의 失敗는 다만 企業者의 損害에 만 止치 안코 其影響은 直히 金融業에 及하야 一般經濟에 波瀾을 惹起하야 逐次此救濟에 適한 方策을 講치 아니하면 如何히 될가 함은 勿論 企業者가 各自覺醒하야 奮闘努力하야도 此等에 在하여는 國家로셔 特히 充分한 補助를 與하야써 積極

第二、朝鮮人農事改良에 關한 會社의 設立案

(一)要旨 朝鮮에 在한 産業即農、工、商、林、漁、鑛、其他如何한 産業에 對하던지 現時代에 順應하고 又는 朝鮮人의 福利를 增進케 홀 根本策을 行하여야 될 것은 勿論이나 就中農業은 朝鮮人全體의 生命이라고 모 云홀만한 最大産業이 것만은 從來와 如히 何等의 國家的保護가 無하고 殆히 自由放任하야 粗放的方法만으로는 到底히 斯業을 期치 못홀 것이라

國의 生産力을 增殖케 함에는 勿論農民이 스사로 奮發하야 土地를 開拓하고 耕作을 改良하며 水利를 振興하고 又는 肥料를 利用홈에 在하되 前述과 如히 朝鮮人은 元來資本이 貧弱하고 技術도 아즉 優良치 못홈으로써 玆에 特別한 大資本의 農事機關을 設하고 一方으로는 스사로 農事改良、農林業의 經營、土地開墾、水利經營其他附帶事業을 行하야 農事의 模範을 示하며 實地의 指導를 與하고 同時에 一方으로는 篤農家로써

有利한 事業을 經營하더라도 資本의 不足으로 因하야 其功을 奏치 못홀 者에게 長期低利의 資本을 供給하야 所業의 發達을 促進홈이 極히 必要한 所以이라

(二)要件

가、資本金 一千萬圓

나、目的 農事改良、農林業의 經營、土地開墾、水利經營、其他附帶事業

年賦償還에 依한 資本金貸付

다、位置 京城에 本店、其他必要地에 支店을 置홈

라、債券發行 拂込資本金額의 十倍

마、補助 滿十年의 期間中 拂込株金에 對하야 年八朱의 配當補助를 受홈

바、役員 全部朝鮮人

사、監督 總督府로부터 任命

第三、朝鮮人産業의 發達을 助成홀 特殊金融機關의 設立案

(一)要旨 現今朝鮮에 在한 金融機關은 朝鮮銀行、殖産銀行、朝鮮殖産銀行、各普通銀行、東洋拓殖會社、金融組合等本支店을 合하야 五百五十三個所이니 各其朝鮮産業의 發達에 貢獻은 不少하얏다고 云치 못하겟고 特히 朝鮮殖産銀行은 六農工銀行의 後身으로 勿論朝鮮人을 本位삼아 殖産資金을 供給홀 것이어늘 從來同銀行의 朝鮮人에 對한 貸付는 極其少額이 되야 朝鮮人을 殆히 度外視한다고 可謂홀지라。最近各金融機關의 朝鮮人에 對한 貸出總額은 僅히 一億一千九百萬圓이 되야 此를 日本人에 對한 貸出額一億六千四百萬圓과 對照하면 四千五百萬圓의 差를 生하고 更히 此를 人口割로 見하면 朝鮮人은 一人當七圓五錢、日本人은 一人當四百六十八圓五十七錢에 相當한즉 朝鮮人은 元來資力이 貧弱하거늘 加之如斯히 其貧弱한 資金의 供給으로는 設令優良한 技術이 有하고 旺盛한 進心이 有한 者라도 如何히 事業의 成就를 期하며 産業의 發達을 遂홀가。特히 商工業과 如한 圓滑한 資金의 融通과 相俟하야 充分한 成功을 期홀 것이니 此際에 更히 朝鮮人을 本位로 한 特殊金融機關을 作하고 一方으로는 農工業其他産業에 生産資金을 供給하야 富力의 增進을 助成하며 一方으로는 商工業者의 金融을 補助하야써 朝鮮의 現狀에 鑑하야 가장 必要하고 急務가 되는 所以이라

(二)要件

가、資本金 二千萬圓 半分은 政府出資로 하야 年一分의 配當을 有케 홀 事

나、目的 農工資金의 長期貸付及其他一般銀行業務

다、位置 京城에 本店을 置홈

라、債券發行 拂込資本額의 十倍外지

마、役員 全部朝鮮人

바、監督官 總督府에서 任命

最終에 臨하야 今日朝鮮의 現狀에 鑑하야 産業政策의 要點될 바가 多하나 主義라 或은 農本主義라던가 或은 農工併進主義라던가 多大한 産業이 中에 特히 重大한 問題는 朝鮮에 在한 最大産業인 米、大豆等의 農産物은 日本의 唯一의 原料地요 每年此輸移入額의 增大를 圖함은 世間周知의 事實이오 外에 輸移出되는 原料品은 一朝加工되야 此加工品은 有益한 事業이니 若此原料品을 朝鮮에셔 加工하면 其利益을 朝鮮에 歸케 할 것이라。勞働賃金이 低廉하고 原料가 豐富한 朝鮮은 工業의 振興을 圖홈이 가장 急務이니 朝鮮人이 스사로 加工하야 此를 供給하면 外地에셔도 此를 供給하는 故로 一面으로는 輸移入品에 對하야 關稅를 課하야 産業保護上 적당한 防止策을 講홈이 必要한지라 玆에 關稅에 就하야 一言하건대 朝鮮의 關稅는 近年에 至하야 多少改正되얏스나 其大部分은 併合以前의 不合理한 低率이 되야 有名無實한즉 朝鮮의 産業保護上 速히 改正을 要홀 것이니 朝鮮의 財政關係上 許치 못홀 것이 아니라 特히 多年懸案의 關稅撤廢問題와 如한 것도 勿論此際에 總督府에서 日本의 移入稅撤廢를 主張하야 朝鮮의 産業은 其根本的으로 保護를 加하야 더욱 一層此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하야 永久히 撤去홈에 努力홈이 可하니 即 農工併進主義를 採하야 朝鮮人의 農業을 積極的으로 保護하고 朝鮮人의 工業々지 모다 絶對的으로 振興케 할 事가 最善의 稅策이오 朝鮮人의 最大多數의 農業의 發達을 圖하야 朝鮮의 現下의 急務로는 朝鮮人의 衣食住의 問題를 解決홈에 在하니 此는 즉 産業振興策의 施設에 要홈이 基礎되는 朝鮮人大多數의 要求를 基礎로 하고 一面으로는 急速히 朝鮮人을 中心으로 産業機關의 設立케 함에 在하도다。會議員諸君은 朝鮮民衆의 福利를 增進하는 大方針을 確定하고 此等産業振興에 關한 私見으로 建議하는 所以로니 貴調査會議員諸君은 輿論에 依하야 朝鮮人救濟의 方策을 設하고 此를 實施홈에 助力하기를 懇望하노라(完)

總督成歡視察

齋藤總督은 再昨十八日守屋秘書官 草間御用係等을 隨하야 午前十時發列車로 成歡에 赴하야 同地를 視察한 後 午後七時五十分着列車로 歸京하얏다더라

産調分科會終了

産業調査委員會分科會는 前回에 引續하야 十九日午前九時半부터 開會하고 第一分科會는 午前中으로써 終了하미 石塚主査로부터 他部의 交涉案件이 回附되지 아니하는 限에는 于先第一分科會는 閉會될 旨를 宣하고 産業一般方針、運輸交通金融에 關한 具體的成案을 可決하얏는데 第二第三兩分科會는 午前午後에 亘하야 會議를 續行하야 宜乎當日中으로써 終了하게 되고 各部가 모다 大體上原案을 承認하나 部에 依하야 希望事項을 附帶案件으로 하야 今日開會홀 本會議에 提出홈에 至홀는지 難測이오 期는 目下의 所見으로는 本會議에셔 論議가 沸騰하야 討論이 未了하면 一日或은 二日間을 延長치 아니홀는지 限度에서 延長케 되지 아니할런지 오니홈더이라더라

産調委員素砂往還

産業調査會委員元田拓殖局次長並有賀殖銀頭取、河內山財務局長一行十七名은 再昨十八日京仁線素砂를 視察하고 卽日歸京하얏더라

小野局長滿洲行

産業調査會委員으로 入京中인 大藏省理財局長小野義一氏는 會議終了와 同時에 滿洲로 向하야 各地의 狀況을 視察한다는데 其他에도 尙且數名의 視察者가 有할 듯하다더라

半井課長歐米行

往復九個月間의 豫定으로 歐米各國에 出張을 被命된 總督府庶務部文書課長半井清氏는 來二十二日朝出發하야 來月十六日橫濱에서 解纜하는 便船에 搭乘하고 太平洋會議에 出席하는 外務省派遣員과 同行하야 華盛頓에 直行하기로 決定하얏는데 華府에는 太平洋會議開會前十日頃에 到着하야 會議終了々지 同地에 滯在한 後 歐州로 向할 豫定이라더라

智多政府

某하야 會日本과 通商協約의 協議中 撤兵問題에 關하야 亦智多政府는 尼港事件의 結果로 其解決을 要한다하야 極東共和國의 事件의 解決을 至하기 까지 保留하겟고 又現在撤兵問題 則力으로 對尼港事件으로 保障하기 어렵다하야 薩哈連州의 駐兵은 日本의 自主的으로 撤兵홀 것이오 漁業의 安定과 通商可能狀態의 出現하는 撤兵의 意見을 主張하고 必히 日本의 提議에 依하야 撤兵을 認하야 ... 日本의 自主的으로 撤兵을 斷行하겟고 日本 撤兵問題에 關하야 하니 會議 懸案의 保障을 要求케 되는 것이니 勿論 日本의 主張은 絶對的인 것이나 智多政府의 反省을 促하야 讓步의 餘地가 有하다하야 智多政府는 漸次讓步하야 第一의 形式問題이나 第二의 難關은 撤兵問題에 關聯한 兩者의 諒解如何에 在하니 萬若 此의 解決이 不成立되면 交涉은 如何에 在하니 萬若

立되는 것이 오 萬若撤兵問題를 諒解하면 通商協約은 成立되리라 日本의 面目을 重히 하지 아니하면 智多政府의 主張을 許容하야 撤兵問題에 關하야 不成에 歸할 것이라 然而智多는 交涉의 提議者로 日本의 主張을 無視하야 通商協約에 入하리라고 觀測된다

戶別稅徵收期

營業稅漏洩事件으로 以하야 問題가 되는 京城府의 所得額査定諮問은 去十七日의 府協議會에서 決定하얏슴으로 府尹은 此決定査定案에 依하야 至急히 戶別稅賦課의 手續을 進行하야 數日中에 告知書를 發送하고 今九月로써 納入期限이 되는 戶別稅第一期分의 徵收를 行하게 될터인데 本稅에 對하야는 所得額의 秘密漏洩問題가 發生한 今日에 徵稅에 關하야 府當局은 稅務進行上支障이 大홀 것을 憂慮中이라더라

實業聯合會出席數

京城商業會議所는 各地日鮮實業家의 出席을 促하야 實業聯合會에 出席할 者가 現在約四十名이라더라

兵庫視察團動靜

兵庫縣會議員長千葉宜太氏外團員十四名의 視察團은 去十八日午後七時五十分南大門着列車로 入京하야 浦尾旅館에 投宿하얏는데 十九日은 總督府並京畿道를 訪問하고 直히 地方課의 案內로 市中을 視察하고 今二十日朝 京城을 出發하야 新義州로 向할터인데 一行은 北京上海方面外지 視察하는 豫定이며 旅程은 一個月의 豫定이라더라

豐橋聯隊將校團

豐橋聯隊區將校團 佐竹大佐以下一行十八名은 來二十一日滿洲로부터 來京하야 午前九時二十二分龍山驛着列車로 入京하야 龍山司令部及其他를 訪問한 後 小泉通譯官의 案內로 南山公園、景福宮、其他市街를 巡覽하고 同夜龍山驛發列車로 退京할 터이라더라

二十二日은 步兵七十九聯隊兵營、總督府訪問、南山公園、塔洞公園、景福宮、其他市街를 巡覽하고 同夜龍山驛發列車로 退京할터이라더라

視察하고 隨意解散하얏다가 午後에 拜觀한 後 博物館、動植物園을 秘苑을 拜觀한 後 兵營視察 ... 此에 入하야 休식後 午後는 昌德宮에 赴하야 大庭軍司令官을 訪問하야 敬意를 表한 後 偕行社에 入하야 休息하고

現物出來值

釜山 ▲玄米之部

密陽三等穀良	一八、六五
金海同	一八、六五
泗川同	一八、一五
永川三等同	一九、一五
同 一等同	一九、五〇
慶山三等神力	一八、四〇
倭館三等穀良	一九、二五
慶山三等神力	一八、八〇
尉山三等穀良	一八、四〇
永川同	一八、九〇
伊院三等倭租	一八、〇〇
同 同	一八、〇〇

▲大豆之部

鳥致院三等	一四、五〇

民聲

▲今回에 開會한 産業調査委員會는 其開會의 意義가 重大하고 朝鮮民衆의 福利를 增進홀 大方針을 確定할 터이라 하야 朝鮮人側의 熱心과 誠意로써 審議하며 討論한 것은 勿論일더이라 ▲그런데 十七日會議席上에셔 松山常次郞君은 帝國議會壇上에서 獅子吼하든 態度로 朝鮮의 産業開發을 爲하야는 日本의 資本을 巨額으로 流入할 必要가 有하니 政府는 當場에 數千萬圓의 低利資金을 融通홀 뿐이 不可하다고 小野大藏省理財局長에게 向하야 質問을 發하얏다 ▲小野局長은 亦帝國議會의 政府委員갓흔 態度로 大藏大臣或은 次官이 答辯할 것 갓치 責任잇는 答辯을 하얏다 ▲可惜하나 朝鮮開發이 正責任者된 總督府當局等은 壁上觀戰格으로 袖手傍觀하얏다 ▲松山氏의 意見에 對하야 一言半辭도 共鳴이 無하얏다 나 그런 好機를 노치고 何時를 待하랴고 ▲잘 되나 못되나 朝鮮産業에 對한 大方針을 討議하는 此際에 當하야 『朝鮮이 日本의 殖民地라 거니안이라 거니』하는 小僧等의 論戰을 開하얏다 ▲所謂植民學說이라는 것을 가지고 니와 쇠 俱曰予聖으로 筆戰을 試하더니만 結局은 不得要領에 歸하고 말 것 갓더라 ▲朝鮮에 와서 학위學說 論難하며 耳를 傾홀 者도 無하고 朝鮮開發에 利益될 點이 毫無하다 ▲朝鮮이 아모리 엇지 되얏다 하든지 君等의 『자란』거리에 祭品이 되겟는 나는 植民地々々하는 것이 안이가 보에 嘲弄

石塚總裁安東行

産業調査委員會에 出席中인 石塚東拓總裁는 同會議가 終了됨을 俟하야 二十一日出發하야 安東縣으로 赴하야 同地를 視察한 後 歸東하기로 決定하얏다더라

商況

朝鮮銀行券 (十八日現在)

發行高	一〇三、二四六、二六七
正貨準備	五四、〇四一、七八〇五

日銀兌換券 (十七日現在)

發行高	一、〇七七、五七〇
正貨準備	一、〇六七、五七〇
保證發行餘力	一二、〇〇〇
貸出高	五三、八六

日本金利市況 (十五日現在)

	東京	大阪
金利		
無條件	九、五	
翌日物	八、〇〇	五、
六十日物	一六、	一四、

大阪三品

當月	(二五九、六)	二四〇、六
九月	(二五一、三)	二五一、五
十月	(二六、〇)	二六〇、五
十一月	(二五〇、四)	二五六、五
十二月	(二四〇、四)	二二〇、五
一月	(二三三、〇)	二三〇、〇

仁川期米

初付	二十九圓五十錢
止値	二十九圓八十錢
高値	二十九圓五十五錢
安値	二十九圓三十錢

公定價格

一節	二十九圓八十錢
二節	二十九圓九十二錢
三節	二十九圓七十八錢
四節	二十九圓七十七錢
五節	二十九圓七十七錢
六節	二十九圓二十九錢

十九日後場(電話)

初付	二十九圓四十五錢
止値	二十九圓八十錢
高値	二十九圓八十錢
安値	二十九圓六十錢

公定價格

一節	二十九圓八十錢
二節	二十九圓七十一錢
三節	二十九圓七十四錢
四節	二十九圓七十三錢
五節	二十九圓六十七錢

綢緞布木時勢

緞屬市價(一疋) 九月十八日 本社調査

三端色龍先永秉	六、八〇
五福永秉	六、九〇
無紋永秉	一、五〇
同 毛本緞	四、〇〇
同 色甲紗	七、八〇
同 正牌甲紗	八、五〇
同 牛素、花牛素	八、五〇
同 生庫紗	
同 純仁、花純仁	一、八〇〇
熱素、花熱素、熱庫紗	二、〇〇〇
二十才紫甲紗、全金花頂	二、〇〇〇
四丈別紋官紗	一七、〇〇
丈三足唐元緞	一七、五〇
五足唐元緞	

朝鮮產細苧布(一疋)

韓山改良苧	上	七、八〇
	中	五、七〇
	下	三、五〇
吉 布	上	二、〇〇
	中	五、〇〇
	下	一、〇八
鎭		
麻 紬		
咸 原 紬		
洪 加 重三八紬		五、五〇
東 加 重三八紬		二、四〇〇
水 三八紬		八、八〇
紫 官 紗		二、四〇〇

布木及洋屬(一疋)

廣木	三九龍	七、五〇
	南大門	七、四〇
	月象	五、五〇
	金貨	五、五〇
	美壽	九、三〇〇
洋木	寶鳥	三、六〇〇
	飛人	三、二五〇
	世界	五、〇〇
玉唐木	金進	三、五〇
	鼎	四、〇〇
木綿	漢洋木	一、四〇
	瓦斯	一、九〇
	晒木綿	一、〇〇
	慶木	一、二〇
	準木	一、二〇
玉洋木	十八學士	二、三〇〇
	十八士子	二、二〇〇
	八士圖	一、八〇〇
	忠良山	一、〇〇〇
	臥牛臺	九、〇〇
	銅雀丹	五、〇〇
	九牧財	六、〇〇
	大家發	二、〇〇〇
洋屬	木毛紗	二、五〇〇
	官紗	二、五〇〇
	西洋紗	四、〇〇

京城標準時勢

京畿三等玄米	一七、五〇
地擔玄米上	一六、〇〇
同 並	一四、七〇
一等白米	二九、〇〇
韓白米	三三、〇〇
中白米	二九、〇〇
收良粟	七、五〇
任來粟	七、〇〇
龍山大豆	一五、〇〇
長湍大豆	一四、二〇
鐵原大豆	一四、二〇
汁浦大豆	一三、八〇
金郊大豆	一三、八〇
滿洲粟上	九、五〇
同 並	九、二〇
同 下	九、〇〇
朝鮮小豆	一五、〇〇
牛豆	一二、五〇
綠豆	一三、八〇
荏子	一四、五〇
胡子	一四、〇〇
小麥	一六、二〇
大麥	五、二〇
朝鮮舊麥	一三、〇〇

各地穀物

京城穀物 十九日

午後之部

延取引	不申
玄米	現物保合
白米 出來品皆無	保合
大豆 出來品皆無	保合
滿洲粟 出來品皆無	保合
小麥 出來品皆無	保合
雜穀 出來品皆無	保合

京城株式 (九月十九日)

株名	前場	後場
京取	一〇八、〇〇	
仁取		
朝銀		
殖銀		
同新		
朝鐵		
同新		
韓銀		
朝新		
同新		

株名	前場	後場
漢銀		
同新		
朝一		
東拓		
同新		
京土		
同紡		
京毛		
京電		
京勸		

株名	前場	後場
朝興		
朝紡		
朝實		
朝鐵		
中鐵		
鐵		
朝鮮		
商業		
朝米		
釜鐵		

現株取引信託計畫

京城中村再造、齊藤久太郎、梶原末太郎、市川肇、三好和三郎、尹命殷、尹顯泰、金錫卑、大連、加藤直輔、奉天、佐伯中平、安東縣原田市松의 諸氏가 發起가 되야 今回京城現株取引信託株式會社를 計畫하고 事務가 進行한 바는 데 資本金은 當初五百萬圓의 豫定이더니 四圍의 事情은 創立의 順急을 要홈으로 因하야 半分인 百萬圓으로 하기로 하고 同社創立을 終了홈과 共히 引續하야 資本金四百萬圓의 第二信託社를 起하야 當初의 目的을 達成하기로 決하얏는데 營業目的은 有價證券의 所有並信託、證券商品의 擔保貸付及保管、荷爲替의 代辦、財産의 管理及運用引受、社會的公共事業及基金의 特別扱及此等에 附帶關聯하는 事業을 行홀 것이오 九月二十一日부터 二十三日々지 三日間에 二千株以內의 公募를 行하리라더라

天然氷創立總會

朝鮮天然氷株式會社一姉妹로 創立中에 關한 天然氷倉庫株式會社의 創立事務는 자못 順調로 進行되야 總督府의 援助도 잇고 水產組合及銀行等의 贊助人이 一萬三千株內에 發起人株五千五百株、天氷社株五千五百株(舊株式、株에 對하야 一株의 比例)와 公募豫定一千株合計一萬九千五百株를 控除하고 其餘一萬五百株를 贊成人에 게 分配하기로 定하얏는데 目下申込가 滿株에 達하야 豫想以上의 盛況이라 割當分配方法에 苦心中인 바 不久에 創立總會를 開케 되겟다더라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電話長三 本店電話一七一、二七一 北 仲買店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仁川府海岸町 合仲買店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仁川府海岸町 電話七番、九五番 合仲買店

仁川 總販賣所 福 小林藤右衛門

滯症을 장부로 胃腸을 健實하게 홈니다 … 各種藥具子 무엇이던지

△활동할시긔을만난농부들▽…… 회금밧게셔

警視廳의 大活動

韓昌東이 渡日하얏다고 션박경계와관계수상셔에 데포령을일제히발송

본월초순경 동경면하 귀조할림시 운홍(呂運弘)이가 확실홈으로 에상회로부터 일본으로건너온 목하엄즁히 취조를ᄒᆞᄂᆞᆫ즁이라 ᄒᆞᆫ창동(韓昌東)(二八)의잇ᄂᆞᆫ곳 더라 수사코저 경시텽파신나쳔현경찰부(神奈川縣警察部)ᄂᆞᆫ협력ᄒᆞ야탐사ᄒᆞᄂᆞᆫ즁이든바 도모지죵젹지못ᄒᆞ얏ᄂᆞᆫ디 한창동은지나간십오일에 일본우션회사(日本郵船會社) 비표마ᄂᆞᆫ곳에셔상회로오ᄂᆞᆫ죽도환(竹島丸)의삼등비표를산것ᄭᆞ지조사ᄒᆞ고 즉시동인을데포ᄒᆞ야달나고 경시텽으로부터 횡빈경찰부에뎐보가도착ᄒᆞ얏슴으로 죽도환 이십륙일오젼열시에횡빈신항뎨일호안벽(橫濱新港第一號岸壁)에셔 ᄯᅥ나게됨으로 수상셔원은 고부파복뎐(福田) 경부의지휘ᄒᆞᄂᆞᆫ우리에셔 일즉이그비를향ᄒᆞ고 조쳐나갓스나 츌범ᄒᆞᆫ기ᄭᆞ지 이향ᄒᆞ얏ᄂᆞᆫ니 보지못ᄒᆞ미 복뎐경부등은 그항구다보지마자 그비가마ᄯᅥ나랴홈 데십삼호안벽에셔ᄯᅥ나ᄂᆞᆫ론돈으로향ᄒᆞᄂᆞᆫ인판환(因幡丸)을치여 ᄯᅥ에엇더ᄒᆞᆫ자한명이 션두오르ᄂᆞᆫ것을보고즉시조쳐가셔 안벽에 니버린「도랑구」를 조사ᄒᆞ야보즉 한창동이분명홈으로 즉시비의머물기를명령ᄒᆞ얏스나 비ᄂᆞᆫ그디로죵류로진힝홈으로 복뎐경부ᄂᆞᆫ즉시수상경찰셔로 도라와동셔에비치ᄒᆞᆫ모-다-보-토를타고 젼긔인판환을십이션창(十二號沖)ᄭᆞ지 조쳐갓스나 이니속력을쏘ᄅᆞ지못ᄒᆞ야 영々데포치못ᄒᆞ고즉시그ᄯᅳᆺ을병고현(兵庫縣) 경찰부에 통쳡을발송ᄒᆞ얏다더라

南大門驛頭에서 呂運洪逮捕

중국북경을출발ᄒᆞ고 문서로가ᄂᆞᆫ길에

일작십팔일오젼열시에 남대문뎡거쟝(南大門停車場)에셔 ᄃᆞᆫ으로향ᄒᆞᄂᆞᆫ 급힝차를타랴ᄒᆞᄂᆞᆫ중국의복을입은 엇더ᄒᆞᆫ사람이하나잇다ᄒᆞᄂᆞᆫ디 그시에맛침경계ᄒᆞ고잇던 경관은하도수상스럽게보임으로 곳그사람을 조사ᄒᆞ야본즉 자긔ᄂᆞᆫ 일본문사(日本門司)로향ᄒᆞ야가ᄂᆞ라고 쇼년은 중국말과 영어로만디답홀ᄲᅮᆫ이나 횡동이더욱이상ᄒᆞ야즉시그사람을 경긔도경찰부로다리고가셔 임의준비ᄒᆞ야두엇든여러사람의 사진을 니여노코비교ᄒᆞ야본즉 틀님업ᄂᆞᆫ 상회가명부(上海假政府)에 근무로잇ᄂᆞᆫ 려운홍(呂運洪)의친아오라

社會主義者關係로 元鍾麟召喚

약삼시간이나엄즁ᄒᆞᆫ취조를밧고왓다

효민회(曉民會)일파의 사회주의자와 동경에잇든도텬사롬(高津正道) 등의불경사건은 동이에긔틱샹통ᄒᆞ고진쳥도 디방지판소에옴기엿ᄂᆞᆫ디 십륙일 오후일시반에ᄂᆞᆫ 동경에이로조션사롬사이에 조직된무비밀결사 유령 원죵린(元鍾麟)(二八)을쇼환ᄒᆞ야 고텬(古田) 검사의취조실에셔 약삼시간이나엄즁ᄒᆞᆫ취조를밧고 동뎡이라더라

ᄉᆞ산사롬은 돌녀보니엿ᄂᆞᆫ디 동일경시텽특별고등과의산뎐(山田) 경부、쇼텬(小川)수사계장은 고텬검사를방문ᄒᆞ고사회쥬의자검거에취ᄒᆞ야 협의ᄒᆞ고신일시경의희산ᄒᆞ얏더라(동경)

高普生의 見學

션발디ᄂᆞᆫ작일금강산을향ᄒᆞ야츌발ᄒᆞ얏다

시니화동 고등보통학교(高等普通學校)에셔ᄂᆞᆫ 동교심도쳐무의 실디견학을 위ᄒᆞ야각반의비딕도난호와 일부ᄂᆞᆫ강원도금강산으로 일부ᄂᆞᆫ경상도경쥬로 일부ᄂᆞᆫ경긔도인쳔으로수학려ᄒᆞᆫ다ᄂᆞᆫ디 일부ᄂᆞᆫ강원도금강산으로향ᄒᆞᄂᆞᆫ 윤(尹)치의인솔로 작일오젼십시이십분 경원션으로츌발ᄒᆞ얏고 경쥬로향ᄒᆞᄂᆞᆫ일부ᄂᆞᆫ 이십삼일츌발ᄒᆞᆯ터이며 기타의부ᄃᆡ도 각각수시츌발ᄒᆞ다ᄂᆞᆫ디 젼발ᄃᆡᄂᆞᆫ 약일주일후회환ᄒᆞᆯ예뎡이라더라

仁川警察署 檢事局과 聯絡密議

某重大事件의眞相暴露 혹은모샤쟝의비밀죄혹은○○사건의샤긔횡령

유일젼부터 인쳔경찰셔와 인쳔검사국에셔ᄂᆞᆫ 셔로왕리가비々ᄒᆞ야 쇼모뎐(小牟田)셔장이 사복으로 검사국을방문ᄒᆞ고ᄯᅩ 계속ᄒᆞ야 창포퇴(菖蒲澤)사법쥬임이 검사국을방문ᄒᆞ고ᄯᅩ산퇴(川澤)검사가 경찰셔를방부ᄒᆞ고 셔로무슨의인지 비밀속에셔 회의를ᄒᆞᄂᆞᆫ등그모양은미우급々ᄒᆞ야 당국에셔ᄂᆞᆫ 츙돌부에 폭탄던진사건이라고ᄒᆞ나 엇더ᄒᆞᆫ방면으로부터 드러오ᄂᆞᆫ쇼문을들으면 폭탄사건에디ᄒᆞ야ᄂᆞᆫ 지나간쉬오일집흔밤에브니ᄀᆞ라관료리뎜등을 림검ᄒᆞ고

기타에도 ᄒᆞ야보고와회의가 잇셧ᄂᆞᆫ디 본릭 목뎌를인즉부니어ᄂᆞᆫ곳에밀싱ᄒᆞᆫ죄디사건에디ᄒᆞ야 뎜차로긔쇼를쥰비도이와갓치 밀의가되ᄂᆞᆫ것갓흔며ᄯᅩ이사건이 지나간팔월에검사국손에드러간이린로 검사에셔사ᄒᆞᄂᆞᆫ것인듯ᄒᆞᆫ디 혹은에ᄂᆞᆫ 회사々쟝의비밀죄(背任罪)라고도ᄒᆞ고혹은○○사건에 관련된사긔횡령(詐欺橫領)이라고도ᄒᆞ나사건은 절디로비밀에부치두ᄂᆞᆫ고로 언뎡ᄒᆞᆯ기어려우나머지안이ᄒᆞ야 발표될듯ᄒᆞ다더라

검사국에출두ᄒᆞ야 윤덕영자ᄅᆞᆫ브터 고쇼안사건에디ᄒᆞ야 여더가지로취조를밧고 ᄯᅩ오후에이시부터ᄂᆞᆫ 고쇼인된윤덕영자ᄂᆞᆫ검사국으로 쳔셔검사를방문ᄒᆞ고 진순ᄒᆞᆫ바이잇셧다더라

李氏召喚

작일오젼구시 동아일보편집겸발힝인의일명은 경셩디방법원

獨立團과 搜査隊의 衝突

독립단원도죽고 슈사디원도죽어

본월구일평안북도 북진경찰셔(北鎭警察署)쳔촌(川村)경부브의인솔ᄒᆞᆫ 수사디ᄂᆞᆫ 동도운산군성면(雲山郡城面)에셔수명의독립단과충돌ᄒᆞ야 셔로총화를발사ᄒᆞ얏ᄂᆞᆫ디 독립단은모두산솔으로ᄯᅩ망ᄒᆞ얏스나 기후수사의결과 십칠일에이르러 현샹흔상거ᄒᆞᆫ 약사쳥쥰되ᄂᆞᆫ산즁에셔의주경찰디의 란환에독립단원최명도(崔明道)를사살ᄒᆞ야 고촌(高村)순사ᄂᆞᆫ 독립단파총을활지옴에 한알에복부를관통ᄒᆞ야수당ᄒᆞᆫ이든바 십륙일드듸여샤망ᄒᆞ얏다더라(의주)

産調委員招待

경셩부주최로작일오후 여셧시에조션호텔에셔

조션총독부산업조사회(産業調査會)ᄂᆞᆫ금일로써죵료됨으로조셩부에셔ᄂᆞᆫ 부민일반의주요인

홈々방ᄂᆞᆫ야 작ᄇᆞ오후여셧시에조션ᄂᆞᆫ례ᄂᆞᆫ특별실에셔동위외의환영회를기최ᄒᆞ얏ᄂᆞᆫ디출셕ᄒᆞᆫ어ᄂᆞᆫ산업조사위원에외에졍봉유두 수야정무총감이비빈(陪賓)으로 초디되얏스며공동지와각국쟝이출셕ᄒᆞ고 쥬긔합ᄒᆞ야 어빈여명이팁셕ᄒᆞ얏ᄂᆞᆫ디 공회에셔ᄂᆞᆫ다시유민회(維民會) 치괴두(然井斗)윤덕하(尹宗弼)안국선(安國善)동상씨와 산업조사회(産業調査會)리범승 리풍젼(李豐載)박용희(朴容熙) 리범승(李範昇)드삼씨를청ᄒᆞ야 산업에디ᄒᆞᆫ의견을쇼통ᄒᆞ얏더라

秋夕日東京에서 朝鮮人大格鬪

두문여달명은 경찰셔에구인

본월십륙일은 유력팔월십오일 츄셕(秋夕)명절에샹당홈으로 일본디판시(日大阪市)에거쥬ᄒᆞᄂᆞᆫ 됴션인은 누구던지모ᄃᆞᆫ 하로업무를 쉬고가ᄒᆞ고 도처마다 술상을버리고 실당이로ᄂᆞᆫ디 당일오후구시경셤되야 디만시너셔구쳔안정디쳥묘(西□川岸町大正館)부근조고마한집에셔 됴션사람ᄇᆞᆫ단이회집ᄒᆞ야 입시비를시작ᄒᆞᆫ든유 홀연히 그부근에산저ᄒᆞ얏든칠십여명의 됴션인이몰녀와 ᄒᆞᆫᄯᆡ에우려져젼쇼욕을습격ᄒᆞ야형체가 외현ᄒᆞᆷ으로 쇼할됴일교셔(明□橋署)에셔ᄂᆞᆫ 다수ᄒᆞᆫ경관을급히파송ᄒᆞ야 진부에노력ᄒᆞᄂᆞᆫ동시에 기즁에셔 무목니라도만ᄒᆞᆫ자여덟명을 본셔로인치ᄒᆞ야취조중이오 ᄯᅩ부하셔경군포장(府下西成郡浦江)에셔도 일명의됴션사람이 술이디취ᄒᆞ야 난폭ᄒᆞᆫ힝동을ᄒᆞᆷ으로맛도롱힐ᄒᆞ야 그조션사람은 관할츌쇼회옥의경관이 포강파츌쇼ᄒᆞ얏던바 그곳가홈을 쥰유허셜유홈을분긔ᄒᆞ야 자긔의동디자를모와가지고와 몽파츌쇼흑파괴ᄒᆞ고 유혈이비상ᄒᆞᆫ후도망ᄒᆞ얏ᄂᆞᆫ디 복도경찰셔(福島警察署)에셔ᄂᆞᆫ 만일을념려ᄒᆞ야비상경계를ᄒᆞᄂᆞᆫ중이라더라(동경연보)

軍艦三笠의 坐礁

폭도을진무코자출동ᄒᆞ얏다가도라오ᄂᆞᆫ희중에 舞鶴鎭守府ᄂᆞᆫ救援隊派送

포련(浦鹽)을즁심삼고 연회쥬(沿海州)방면에셔경비의최임을맛흔사령관 츄촌쇼샹(司令官小村小將)의인솔ᄒᆞᆫ 뎨오젼디긔함삼립(第五戰隊旗艦三笠)이라ᄂᆞᆫ 쳐에폭도가일어낫다ᄂᆞᆫ 급보를듯고일본인을보호ᄒᆞ기위ᄒᆞ야 지나ᄂᆞᆫ십삼일에 포련을츌발ᄒᆞ야「쇠」도오리가」항을경유ᄒᆞ야「구쇼고-」방면에이르럿스나

아모연고 업슴으로모라나야를츌발ᄒᆞ야 포련으로도라불작명으로 십오일에「졔리요」오ᄂᆞᆫ도즁에 십륙일오젼여셧시사십분「아스고-리」로남편에셔 자옥ᄒᆞᆫ안개를맛나비길을일코암초(岩礁)에걸니미 비속에잇ᄂᆞᆫ일동은무사ᄒᆞ얏고 즉시힘을다ᄒᆞ야 암초에버셔나기를힘ᄡᅳ스나이니연흔목으로밀니여 쳔뎨에일부ᄂᆞᆫ파상을당ᄒᆞ고위험ᄒᆞᆫ상태ᄂᆞᆫ 당장목젼에잇슴으로 지급히응원을ᄒᆞ야달나ᄂᆞᆫ

무션뎐신 윤무학진수부(武鶴鎭守府)로발송ᄒᆞ얏슴으로 동진수부에셔ᄂᆞᆫ 희군디신의명에의지ᄒᆞ야 십팔일오참々군함츈일환(春日丸)과련습함부사환(練習艦富士丸)과 회군공작션정교(海軍工作船淀橋)등셰척의비에응원디를 실고 런긔조난디(遭難地)로발송ᄒᆞ얏다더라(무학뎐)

韓氏의 假差押

쥬식회사신민공사(株式會社新民公司)로부터 쇼송한 사긔사건에ᄀ ᄒᆞ야 피고한진달(韓進達)씨ᄂᆞᆫ 작일가차압의쳐분을당ᄒᆞ얏더라

飛行將校에게 紀念品贈呈

미슐공장에셔제조

쇼퇴、쟝좌산록군디비힝이 경셩에착륙홈을긔렴으로ᄒᆞ야 경셩부로부터 비힝긔죠종ᄒᆞ야 쟝교사명에게디ᄒᆞ야「금메다루」를증정홀의안(議案)은 시칠분경셩부협의회에셔 이빅오십원의추가샹일치로셔 자문의결과만예산을가결ᄒᆞ야「금메다루」와화환일기식제조중청ᄒᆞ기로되야목하리왕직미슐공쟝에셔 제작즁이라더라

姦通殺人未遂犯 獄中에서 産期切迫

의사의진단에의ᄒᆞ야 목하감옥에셔졍양즁

함경남도셩진군학셩면 옥쳔동(咸南城津郡鶴城面玉泉洞)오빈삼십사번디조은지(趙銀只)(二三)ᄂᆞᆫ 간동살인미슈죄로 함흥디방법원쳥진지텽에셔 무긔증역의판결을밧앗스나 이를억울ᄒᆞ야 복심법원에 공쇼ᄒᆞ얏슴으로 디나간오일에 공판ᄒᆞ기로 긔일을뎡ᄒᆞᆫ것이ᄂᆞ 피고ᄂᆞᆫ젼과와갓차ᄂᆞᆫ동ᄒᆞᆫ결과로인ᄒᆞ야 잉뎐ᄒᆞ야에잡혀오날ᄭᆞ지

류치장과 감옥셔로도라단니게되얏스며 지금도셔디문감옥에셔 회산되기를기다리고잇지마ᄂᆞᆫ이제ᄂᆞᆫ 회산홀날이절박ᄒᆞ야셔의사의 진단의결과동여셔ᄂᆞᆫ 안되겟고절니안졍ᄒᆞ여야된다ᄒᆞᆷ으로 이에공판ᄒᆞᆷ을은부긔로 연긔되엿ᄃᆞᆫ니오마셔디문감옥안에셔 어린오회ᄂᆞᆫ소리가 한번난후에아피고ᄂᆞᆫ공판뎡에나올뜻ᄒᆞ다ᄒᆞ며 이졔그범죄ᄒᆞᆫ사실을듯건디 이되피고ᄂᆞᆫ 젼긔쥬쇼 김문학(金文學)의쳐로 그

남편문학 이슈년젼부터 오라사회삼위ᄅᆞᆼ디에드러가셔도디쳥칠년음팔월부터 그동리사ᄂᆞᆫ 김원화(金元化)라ᄂᆞᆫ자와셔로비밀ᄒᆞᆫ관계를멧고 지나오던즁 동년음십이월경에ᄂᆞᆫ 본부가로령으로부터도라왓슴으로이에간부간부(姦夫姦婦)들은 실흔싱각파귀치으니ᄒᆞᆫ싱각에 두간부가공모ᄒᆞ고 이에본부문학은죽이기로 작뎡ᄒᆞᆫ후 디쳥팔년일월경에 근부김원화의게셔비상을밧오가지고

본부며여 회동엿보든ᄉᆞ에 죽이라고 그밥에 쳔긔자락에셔 동년음칠월이라고 저녁밥(조밥)가비상一七五구람(瓦)을셰ᄭᆞ지셔 본부의게주엇다 본부ᄂᆞᆫ밥상을밧아노코 한슐떠으려입에다너헛스나 밥맛시젼파달나 이상ᄒᆞᆫ감각이됨으로 즉시토ᄒᆞ야ᄂᆞᆫ여버리고말앗나 피고ᄂᆞᆫ이갓치목뎍을달치못ᄒᆞ엿스나 ᄯᅩ갓치잇슬수가업슴으로 동월이십이일밤에

간부김원 화와동반ᄒᆞ야 혜산진(惠山鎭)으로 도망ᄒᆞ야가셔 디쳥구년음십일월ᄭᆞ지계속ᄒᆞ야그동ᄒᆞ엿든사실이라더라

不確實한 仲買店

본원에 신용이폭로될듯

경취(京取)에쇼속된중미인(仲買人)의영업샹태를보면 샹당ᄒᆞᆫ신용을보양ᄒᆞᆫ인즉 너용은현모ᄂᆞᆫ오ᄂᆞᆫ슈々료만 뫼덕으로ᄂᆞᆫ자ᄂᆞᆫ적고 다ᄃᆞ수ᄂᆞᆫ자긔들이 즉컴으로ᄂᆞᆫ미々를ᄒᆞ야 십지어덕분들셔지라도 ᄯᅩᄂᆞᆫ이자긔네의영업을홈으로 취인계에밋치ᄂᆞᆫ폐회ᄂᆞᆫ원반이다인뎡ᄒᆞ나 용이ᄒᆞ게긔션홀줄을모르ᄂᆞᆫ뎜과 손님에게 미혹ᄒᆞᆫ 쥬ᄂᆞᆫ일이 젹에ᄋᆞ니ᄒᆞ다 귀왕에죵미인중에ᄂᆞᆫ이와갓흔부정ᄒᆞᆫ 팀이덤이두어명이ᄂᆞᆺ잇셔々 파반공ᄂᆞᆫ자로표창되엿든북촌우일랑(北村友一郞)씨 가별안간인쳔경찰셔에구뉴를당ᄒᆞᆫ이외에도 이미모호ᄒᆞᆫ숑미념이잇ᄂᆞᆫ듯ᄒᆞ고 그네들별치절디로궁상에 싸쳐잇ᄂᆞᆫ고도그디로 영업을계속ᄒᆞ기는여려운모양인즉 너용은불원간에폭도되리라고ᄒᆞ더라

斷指로 父母를 蘇生케 樓上洞의 孝子(二)

단지ᄒᆞᆫ피를먹여 다시살게ᄒᆞᆫ효자

운수의디숨이러진지ᄂᆞᆫ 벌셔한시간이나거위되엿고 신헤ᄂᆞᆫ점々식넝각ᄒᆞ야오ᄂᆞᆫ것인디 그아ᄃᆞᆯ용헌(容憲)이가무명지손가락을ᄭᅳᆫ어그피를 가쳐다먹인후유현은자긔손을 자긔오버지가슴에가만히디이고 몃분동안고기를々오리고곡원홈을ᄭᅵ고 이상ᄒᆞ다 나가ᄒᆞᄃᆞᆫ가삼이뎜々따뜻ᄒᆞ여옴니오오ᄆᆞ人々ᄒᆞ던딸다리가차々부드려위지ᄯᅥ니 가삼에셔 심장이두시뒤름ᄯᅥ감앗다ᄒᆞᆫ편에셔ᄂᆞᆫ 벌셔(관)사러보

용헌의얼 골봉ᄒᆞᆫ녀다본의마음에도 그손가락에셔피나ᄂᆞᆫ것도 압흔줄모르고오직깁

소싱ᄒᆞᄂᆞᆫ 것을보ᄂᆞᆫ용헌

뎔츤비록ᄂᆞᆫ모양이오 방안에들너인진」여러식구들은이제ᄂᆞᆫ그만이락고 모니울며불며야단이엿ᄂᆞᆫ디 죽엇ᄃᆞᆫ그오버지ᄭᆡ셔나시 사러나셔그마지막으로잘(容憲)을찻ᄂᆞᆫ이에 동강이오직도 피가작구흐르나오며 여고통ᄋᆞ니엿슴ᄋᆞ이나 그깃치ᄋᆞ게되면 그아버지가사라나리다ᄂᆞᆫ밋음으로 그갓치ᄒᆞ얏ᄂᆞᆫ뎌가사싱더로 죽엇던ᄋᆞ버지가사실더로 죽엇던오버지가 ᄋᆞᄋᆞ시깃부고 즐거온마음은엇슴것이오 죽엇나고통곡ᄒᆞ든그집모든 식구 깃봄、아ᄯᅩ홀부엇이라형언ᄒᆞᆯ수잇섯스리오그날부터은유ᄂᆞᆫ 그러케범석에셔이러ᄂᆞ지못ᄒᆞ지마ᄂᆞᆫ 쇼회되기쉬운음식도 청ᄒᆞ야먹고ᄯᅩ여덟살먹ᄂᆞᆫ그말치아들 유길을불너치여ᄂᆞᆫ보면셔「귀엽다」ᄒᆞ며ᄯᅩ자긔강모와

자긔데수 가드려오미반가디인사를ᄒᆞ엿고 ᄯᅩ자긔누님두사롬ᄭᆡ차쳐오미 역시인사ᄒᆞ후반가히모든이야기를ᄒᆞ엿다유현 지쳥(至誠)으로인ᄒᆞ야 그아버지ᄂᆞᆫ이갓치 다시사라나셔벅기도ᄒᆞ고 이야기도ᄒᆞ며차々완전ᄒᆞᆫ사롬이되여가ᄂᆞᆫ모양이오벌셔쇼싱ᄒᆞᆫ지삼사일이되엿셧다ᄯᅩ지나간음본월삼일오후팔시

△△△

졍인ᄃᆡ 회ᄃᆞ이왕ᄒᆞ뒤 멀니긴시가ᄃᆞ시간이나 거진되엿고걸니루ᄂᆞᆫ돔을ᄂᆞᆫᄒᆞᆯ보게ᄃᆞ 동이업시ᄂᆞᆫ단니지못ᄒᆞ게된 그베인디김윤수ᄂᆞᆫ집에셔ᄂᆞᆫ ᄯᅩ다시남녀사오인의울카ᄂᆞᆫ소리가 근처사방에들니게되엿

지나가ᄂᆞᆫ 사롬의게틀유퍼홍감상ᄂᆞᆫ니르키엿고 근처리과ᄒᆞ며차쳐오게되엿다、그러가사ᄂᆞᆫ사롬이 ᄯᅩ다시엇지되인가그오ᄃᆞᆯ의 단지한지칭으로인ᄒᆞ야다시살아서 닷신동안이나년고이야기ᄒᆞ든김윤수의 다시죽은것이엿나、

그아버지를위ᄒᆞ야피를나인가!

용헌의ᄐᆡ력은 엇더ᄒᆞ며 어렛슬분ᄒᆞᆫ살된청년으로 어딧슬ᄭᅢ에사숙에셔한문을、좀빈ᄒᆞ고 그다음약현(藥峴)팡흥학교(廣興學校)예단니다가미동(漢洞)공립보통학교에 그치지ᄋᆞ니ᄒᆞᆯ수업각예 ᄉᆞ름이여치지ᄋᆞ니ᄒᆞᆯ수업셧다(끗)

보통학교를 졸업ᄒᆞᆫ후강습쇼에셔영어부기화가지고졸업ᄒᆞᆫ 부

금년오월 졍에명농(以前)광흥상회(廣興商社)의사무원이되야 지금ᄭᆞ지근무ᄒᆞᄂᆞᆫ중인디 얼마되지ᄋᆞ니ᄒᆞᄂᆞᆫ 월급ᄇᆞᆺ々다가 오륙인의식구를벌어살니ᄂᆞᆫ 부족ᄒᆞᆫ싱각이업시ᄃᆞ니ᄒᆞᄂᆞᆫ 조금도실프ᄂᆞᆫ눈이나 역서 이어려운싱각이업옷치 부지런ᄒᆞ야 그부모를깃부게ᄒᆞ엿고 그가족을즐겁게ᄒᆞ더니 ᄋᆞ직피가다ー마르지ᄋᆞ니ᄒᆞᆫ 손롬이 말긋々혼분감에녀허둔 ᄃᆞ치나되ᄂᆞᆫ 그무명지를문혼디호드려ᄋᆞᄂᆞᆫ 그외어머니가너여보일ᄯᅢ에도 ㅇㅇ이상ᄒᆞᆫ집

一大格鬪를 演出

네사람은싱명이위틱 기타ᄂᆞᆫ중경샹을당ᄒᆞᆫ

會葬ᄒᆞ고도라오난길에

본월십륙일에한큰싸홈이낫스니 이싸홈은실샹우쇼싸홈이다이싸홈은면츌한동긔ᄂᆞᆫ실노무엇이라홀가무려이싸홈이라ᄒᆞᆯ가이승삼증(二重三重)의우쇼싸홈이다그닉용을듯건디 십오일에인쳔부외리민광운(仁川府外里閔光雲)의모친장사에

회장차로 인쳔부금곡리목류ᄂᆞᆫ리(仁川府金谷里栗木里)사름들이 다슈히갓든바무사히쟝례(葬禮)를맛치고 도라오든길에부쳔군(富川郡)에 붓뒤엿ᄂᆞᆫ팔구뎡(十八九町)더리잇ᄂᆞᆫ동「덕다리」라ᄂᆞᆫ즉인쳔부에셔신리를당도ᄒᆞ얏ᄂᆞᆫ지 그ᄯᅢᄂᆞᆫ오후일곱시반쯤되얏ᄂᆞᆫ지라 여러사람들이 그동리엇쿱보다ᄒᆞᄂᆞᆫ사롬의 슐집에당도ᄒᆞ야자그슐집에셔엇더ᄒᆞᆫ자가슐을 만취ᄒᆞ야셔

로인에게 디ᄒᆞ야농욕을ᄒᆞᄂᆞᆫ것을보여러사롬들은 젊븐놈들술을먹고 로인에게농욕을ᄒᆞ며픽악ᄒᆞᆫ짓을 ᄒᆞᄂᆞᆫ것은우리조선사롬되야셔ᄂᆞᆫ 말ᄒᆞᆯ수도업ᄂᆞᆫ륜리(倫紀)의 죄인이라용셔치못ᄒᆞ겟다ᄒᆞ고 그취광자(醉者)를ᄲᅡ고를치며 디단히 ᄭᅮ지졋든바 그스람은취즁에도자긔의실수임을알고 사과ᄒᆞ얏ᄂᆞᆫ디 그엽해셔보든취직의 친구쳠사람이々취긱을다리고가랴ᄒᆞ엿스나 그힝동이미우주져넘어

여러사람 을모멸(侮蔑)ᄒᆞᄂᆞᆫ것이 홈으로 여러사롬은이것을힐란ᄒᆞ며그온당치못ᄒᆞᆫ것을발ᄒᆞ엿더니 이자ᄂᆞᆫ그것을ᄯᅩ협ᄒᆞ야 자긔동리로귀별ᄒᆞ야이리사롬들이 성군작당을ᄒᆞ야오라고밀々히동지를ᄒᆞ엿더라 그러나여러사롬들은 이것을모르고ᄒᆞ은슐도먹고 혹은자긔집으로도다가기시작을 ᄒᆞ얏ᄂᆞᆫ디 그즁금곡리(金谷里)사ᄂᆞᆫ 뎡세팔(鄭世八)(一八)라ᄂᆞᆫ사롬외에신봉윤엄긔영진오(八鳳雲 嚴泰榮)

술을먹던 즁그ᄯᅢ다리사ᄂᆞᆫ김츈산(金春山)이라ᄂᆞᆫ자가(林鎭浩)동여러사롬이 먼져이쇼문을듯고 뒤여와셔시

무례홈을 분긔ᄒᆞ야한번ᄒᆞ마글ᄭᅮ리엿더니 오나ᄯᅥ가와나ᄒᆞᄂᆞᆫ동긔로ᄒᆞ야 여러사롬을 그디로집어낙구쳐 홈부로ᄒᆡ리며그외여러사롬에게모 함부로욕을、고구타ᄒᆞ더니 그ᄯᅢ맛츔그동리사롬들이 김춘산형되ᄂᆞᆫ김춘식(金春植)을보ᄅᆞ고 두루ᄒᆞ고셩군작당ᄒᆞ야오며엇던놈이니동싱을ᄯᅡ리ᄂᆞ냐고 살도둑홈으로 거긔시구경ᄒᆞ든사롬들은 그긔쇠홈고이무리들은 핍악홈으로든、로방을 시작ᄒᆞ야말니든사롬ᄭᆞ지ᄯᅥ려더라 이ᄯᅢ에ᄯᅩᄒᆞᆫ

그장사에 갓다오다가뒤ᄯᅥ러져오든 최삼돌(崔三乭)(二六)이덩명세와 엄긔영ᄂᆞᆫ가뭅것을구ᄒᆞ라다가 ᄯᅩᄒᆞᆫ김가무리의게삼힌바되야 몹시마젓ᄂᆞᆫ디 엇지나픽악ᄒᆞ던지 사롬을무ᄀᆞ거노코룸ᄂᆞᆫ이ᄭᅥᆫ뇌가며 ᄯᅳ리이거의너죽게되얏ᄂᆞᆫ디 이급보를드른인쳔부우각리(牛角里)파츌쇼순사들은 현장에급히달녀간즉ᄂᆞᆫ유홈ᄒᆞ고 무지ᄒᆞᆫ

김가일당 이이것을알고 그목근것을 푸려노코홍아님부려노로혀자긔등이 마진것쳐럼우미잇ᄂᆞᆫ지라 급기우각리파츌쇼ᄭᆞ지 다리고와셔조사ᄒᆞᆫ결과 경망못된놈의김가형데ᄂᆞᆫ 무사히방송되고 싸홈납니다가죽게된덩명셰최삼돌은젼진호가 타바상죄로검사국에 갓치게되엿ᄃᆞ 이세상은잇지된 일인지무죄ᄒᆞᆫ사가곤란을밧고 유죄ᄒᆞᆫ자ᄂᆞᆫ의긔가양々ᄒᆞ야 합긔짓을ᄒᆞᄂᆞᆫ세상인가ᄒᆞ며 그동리윤안이라우사리금곡리사롬의 비평이자々ᄒᆞ며ᄯᅩ이

김춘산이 라ᄂᆞᆫ못된자ᄂᆞᆫ 젼일에도 이러ᄒᆞᆫ일이만히잇슴으로여러사롬들ᄅᆞᆫ말이일본인의쳬덕를밋고 그러ᄒᆞᆫ가보냐고ᄒᆞᆫ

비ᄋᆞᆯ걸기시작ᄒᆞᆷ을 ᄒᆞ엿드ᄂᆞᆫ디 이자ᄂᆞᆫ인쳔부내외리(仁川府內外里)에셔상뎜ᄒᆞᄂᆞᆫ일인옥식상뎜(川人玉植商店)에셔고용ᄒᆞ고잇ᄂᆞᆫ자로 그디상쇼힝이미우불량ᄒᆞ야사롬치기잘ᄒᆞ고 싸홈ᄒᆞ기잘ᄒᆞ기로쇼문이 자々ᄒᆞ며ᄯᅩ이어리석은자ᄂᆞᆫ이것이자긔의

명예로알 고힝악을ᄒᆞᆫ자이라 그김춘산이란놈양자가그슐집이를드리려거ᄂᆞᆯ 일면식(一面識)이잇ᄂᆞᆫ덩명세ᄂᆞᆫ그자가드리옴을보고오던냐고인사를ᄒᆞ엿더바이ᄂᆞᆫ본디싸홈ᄒᆞ랴고온자이라트집이기를오던지마던지무녀관계가잇ᄂᆞ냐고홈으로한자리에ᄋᆞᆫ던ᄉᆞᄂᆡ려사롬들은친구가인사ᄒᆞᆫ데디답ᄒᆞ야 그것이무삼불친절ᄒᆞᆫ말이냐고 최망ᄒᆞ얏스니이합상이 온젼치못ᄒᆞᆫ 김가ᄂᆞᆫ점々농욕ᄒᆞᆷ으로 여러사롬충훈ᄂᆞ딘이자가 금곡리사롬에ᄂᆞᆫ살부지수갓치ᄋᆞᄂᆞᆫ것은 수년젼에금곡리사ᄂᆞᆫ 엇던사롬파산치이(賭博一種)를ᄒᆞᄂᆞᆫ디에 그사롬의잘못ᄒᆞᆫ 긔화로ᄒᆞ야돈을슈여셔엔ᄉᆞ고로 금곡리사롬들이 이것을츄칙ᄒᆞ야두어번ᄭᅳ런것을 혼험ᄒᆞ고향상

훈번긔회 만어드면이한끔픔니다 ᄒᆞ야오더ᄂᆞᆫ차에ᄆᆞᆺ츔이긔회를라셔 그갓치무리한힝동을 혼것이라ᄂᆞᆫ디 게 마진사롬들ᄋᆞᆫ 모나상ᄒᆞ고 구뷰당ᄒᆞᆫ 쳬사롬으미러스지도 못ᄒᆞ게 마젓다ᄒᆞ며이김춘산이라ᄂᆞᆫ자ᄂᆞᆫ 옥식이상뎜에셔 번들々々ᄒᆞᆫ 얼을ᄒᆞᆫ다니 엇지이러케도 밧구위될가?ᄒᆞ며 길가에이사인만모여도 그이야기ᄲᅮᆫ이라더라(인쳔지국)

移轉祝賀席에서 同僚를 殺

범인은즉시피착 신뎨ᄂᆞᆫ당장히부

젼라츙쳥북도영동군읍니리(原籍忠淸北道永同郡邑內里) 현쥬쇼일본문사시빅목리(日本門司市白目崎) 사쳥북 조만샹(趙萬鮮)(三二)은 본월십칠일오젼의시경 그곳에셔 하숙옥영업ᄒᆞᄂᆞᆫ 리상리(李相來)의집에셔식칼노써 동하숙옥에셔 류숙ᄒᆞᄂᆞᆫ 젼라남도 졔주군즁면외도리(全羅南道濟州郡中面外島)츌싱 지룡화(池龍化)(二八)의동뒤를씌르니 김기가 창자ᄭᆞ지달ᄒᆞᄂᆞᆫ중상을당케ᄒᆞ야 당장에

죽어다난 급보가잇슴으로부터 문사 경찰셔에셔 경관이츌장ᄒᆞ야 범인을취압ᄒᆞ고 쇼창검샤국으로부터ᄂᆞᆫ 십칠일아침에 암영(岩永)검사가 말셕(末石)서긔를다동ᄒᆞ고 현쟝에출쟝ᄒᆞ야 실디검증ᄒᆞᆫ후 사톄ᄂᆞᆫ 도변(渡邊)경찰의사립회ᄒᆞᆫ 오리에 히부ᄒᆞ얏ᄂᆞᆫ디홀회의원인은 젼긔리상린가 하숙옥을 그곳으로옴기고 이젼츅ᄒᆞ경

츄셕날밤 달구경ᄒᆞ기와ᄒᆞ야 십륙일밤자긔친고여러사람을쳥요ᄒᆞ야 술을먹ᄂᆞᆫ즁맛참 젼긔조망상이가 츔츄치ᄒᆞ얏ᄃᆞ가 리상리에게디ᄒᆞ야 그슉ᄒᆞ기를의ᄂᆞᆫ혼치지옴에 그엽에이든 지동화가말ᄒᆞ기를 하슉녹이잇ᄂᆞᆫ것보다자긔손으로 밥을지여먹고잇ᄂᆞᆫ것이

미우경제 된다고 ᄒᆞ야더니 조망상은 일본말도ᄲᅡ가々ᄒᆞ며 안으로도라가더니기리가 여덟치되ᄂᆞᆫ식칼을가지고나와셔 돌연히지룡화의동뒤를실너그와갓치 츙샹케홈이라더라

國境附近 出動軍隊의 歸還

필요가업슴으로 모다도라왓다고

향자에함경남도 부근으로진입ᄒᆞ랴ᄒᆞᆫ다 독립단이잇슴으로함경남도 도지사ᄂᆞᆫ즉시함흥보병뎨삼십칠려단장(咸興步兵第三十七旅團長)에게츌병ᄒᆞ기를요구ᄒᆞ얏더니 군디에셔도출병ᄒᆞ야필요ᄒᆞᆫ츌노인청ᄒᆞ후 아리와갓치군병을츌동ᄒᆞ얏더라

▲간령리개유리(三水西南方)에 풍산(豐山)팡디리(廣大里)쟝진에셔셔남방(長津西南方)등디로각々일쇼디식을파송ᄒᆞᆫ외에약간명식ᄂᆞᆫ 헌병을가입케ᄒᆞ얏ᄂᆞᆫ디츌동ᄒᆞᆫ군디수효ᄂᆞᆫ합계가삼쇼디나되ᄂᆞᆫ디그동안경즁되와갓치즉쳠으로토벌을ᄒᆞ야승으로그디밧에ᄂᆞᆫ지금디단히평온홈으로츌동ᄒᆞ얏든군디ᄂᆞᆫ필요치안니ᄒᆞ야지ᄂᆞᆫ구ᄂᆞᆫ부터젼부가모리와다더라

「락지」가潛水夫를吸殺

일본웅본현쵸군디강촌샤향변(迫本縣大草郡大江村字向邊)의희안에ᄂᆞᆫ 보지못ᄒᆞ든큰락지(蛸)가잇셔셔 어부등은잠슈업에 신히위협을감ᄒᆞ야여가 어부김명이 그락지를 포회ᄒᆞ라려차레!그락지를 포회ᄒᆞ라고 명을벤앗긴일이잇섯ᄂᆞᆫ디 그동리잠수업ᄒᆞᄂᆞᆫ 강미칠평(姜尾七平)(二五)은 엇지ᄒᆞ면그락지를 포회ᄒᆞᆯ가ᄒᆞ야본월십이일 어구를휴디ᄒᆞ고길을ᄯᅥ침브러 그희안에나오가큰락지를포회ᄒᆞ랴다가 들연히두발틀락지발에감기여 몸속으로외올녀드러가무참히 죽엇습으로그락지를 포회ᄒᆞ야쳔긔강미칠평의원수를 갑ᄒᆞ랴ᄒᆞᄂᆞᆫ 중이라더라(동본뎐보)

世界的樂家 葛蘇의 遺産

이빅오십여만원 頸飾紙代四千圓

이ᄐᆡ리(伊太利)「나보리」에셔쥭은갈쇼라ᄂᆞᆫ 사롬은ᄀᆞᆫ시본도업시작공으로 치부ᄒᆞ이종ᄂᆞᆫ세계적악단(樂壇)에유명ᄒᆞᆫ인물이된 사롬인디요사이발포된유산(遺產)을들어본즉、총계가이빅오십이만五천원이나되며 근년에ᄂᆞᆫ 일년수입이빅만원이나되ᄂᆞᆫ중 류셩긔회사에셔밧ᄂᆞᆫ보수금이 삼십만원이상이되고 그우에도 ᄒᆞ로밤도연만ᄒᆞ면쳔원니지 이만ᄂᆞᆫ지싱기ᄂᆞᆫ고도 작년에납부ᄒᆞᆫ쇼득세ᄂᆞᆫ삼십삼만원이나되ᄂᆞᆫ디 그외에도장신구(粧身具)가만어셔 디강계산ᄒᆞ야보아도 「목세기」에십륙원이고「구ᄉᆞ」가이빅여커리다ᄂᆞᆫ디 상되ᄂᆞᆫ 『네ᄀᆞ타이』빅여커나라도 이쳔사빅원짜리비네ᄀᆞ타이갑이일쳔五빅원인즉 목에두르ᄂᆞᆫ고밧에ᄂᆞᆫ신ᄂᆞᆫ것만ᄒᆞ야도 사쳔원이상이되니 수입도만치만ᄂᆞᆫ쓰사도잘ᄒᆞᄂᆞᆫ모양이더라

對朝鮮人「요보」는 輕蔑的代名詞?

日本人部落에사ᄂᆞᆫ一府民寄

말ᄂᆞᆫ즉여보ᄂᆞᆫ만은볼ᄋᆞ가도경열덕ᄂᆞ 돗기도감쳐덕사소ᄒᆞᆫ말이마되ᄂᆞᆫ도인ᄒᆞ야 남이김정을ᄋᆞ르키고 결국실인심을지ᄒᆞ라ᄒᆞᄂᆞᆫ것이 죡일본인의이상스러운셩질이다 너무도쿨ᄂᆞᆫ깃지만은 지금조션인파일본인의교쳐ᄒᆞᄂᆞᆫ상틱를볼것갓ᄒᆞ면외면으로ᄂᆞᆫ친졀도ᄒᆞ고 원만ᄒᆞᆫ보양도낫ᄒᆞ나ᄂᆞᆫ것갓지만은 그리면을살피여보면 외면에실허되ᄂᆞᆫ것과ᄂᆞᆫ조판이ᄒᆞ니 즉거쥬샹텬을보ᄋᆞ도 외심업나경셔

오무말ᄒᆞ야도 조선인은부촌ᄂᆞᆫ다수ᄒᆞ계던령ᄒᆞ고 일본인은낙츄예만ᄒᆞ모이여사ᄂᆞᆫ것이부락에셔기여살기 싫다ᄒᆞ미

즉조선인 ᄋᆞ로지엄ᄂᆞᆫ일본인부락에셔가여 살기ᄂᆞᆫ실여ᄒᆞᆫ ᄯᅩ그와반디로 일본인ᄋᆞᆫ조션인사이에 쳔옹젼갓치막이단일유잇나 즉이것이일본인과도마ᄋᆞᆷ업ᄂᆞᆫ가온디에셔 자여히과여잇ᄂᆞᆫ간격이니 이와갓치간격이싱기ᄂᆞᆫ것은 죡의사가갓지읏코디외가나르고 풍속이셔로다르ᄃᆞᆫ엄오ᄂᆞᆫ부터 발싱ᄒᆞ다ᄒᆞ겟시만은 디일일본인의 삽가지못ᄒᆞ고각쳥ᄒᆞᆫ지못ᄒᆞᆫ도것은 인이(靑伐)이니 힝위라ᄒᆞᄂᆞᆫ것은이반두고라도 말이라ᄂᆞᆫ것으납게ᄒᆞᆫ번너이면 듯ᄂᆞᆫ사롬에게

조흔감정 이싱길수도잇고악감청을살수도잇ᄂᆞᆫ것임을부구ᄒᆞ고 그네들이억푹ᄒᆞ면반닷혜조쳔인을가라쳐셔「요보」라고ᄒᆞᄂᆞᆫ것이 입에오른훙가지말투가되얏스니 이「요보」라ᄒᆞᄂᆞᆫ말회부ᄒᆞ야보면 즉조쉬말도며보라ᄂᆞᆫ말이다 조선인이누구불줄에쳥명을볼으지안코보々ᄒᆞ야 나를좀보라ᄂᆞᆫ말에 여시 나지못ᄒᆞ고 항상조선인계리만ᄂᆞᆫ 쓰ᄂᆞᆫ말이되니가 일본인들은그말이

무슨소리 인지도모르고 여하간조션인의 디명사(代名詞)를민들어가지고 이말을쓰것갓흐나 그리ᄒᆞ면조선인이그「요보」쇼리를듯고 올치적사람이여보다고ᄒᆞᄂᆞᆫ말뿐 완전다오던ᄒᆞᄂᆞᆫ것이어니 싱각ᄒᆞ면마음못ᄒᆞ고 쳐와갓치 요보속일본인이 모감쳥이업겟지만은 실상인「요보」라ᄒᆞᄂᆞᆫ것은 조션인에사

과네들이 ᄋᆞ보、여보그것이ᄋᆞ니라 죽자

일종디명사 로민들어으로「요보」ᄂᆞᆫ고로 조션인이면젼싱이라도「요보」젼싱이라고 불으고 판리라도「요보」판리라고ᄒᆞ녀져 조션인ᄋᆞᆫ시엇하ᄀᆞ쇼리ᄀᆞ 늣기싱ᄂᆞᆫ고로 역시일본사룸몹가다커셔 「알시바리」라도ᄐᆞ기타디명사를 민도러붙으ᄂᆞᆫ모ᄋᆞ이니 이것이족 자긔비외힘을자긔가 자여부르ᄂᆞᆫ것이아니면부엇이리오 그러ᄒᆞ고조션인의풍숙이라든지 ᄯᅩᄂᆞᆫ조션인의계조습을 볼ᄯᅢ에ᄂᆞᆫ「요보」식ᄋᆞ 티ᄒᆞ야 롱보발ᄋᆞᆫ다ᄒᆞ도ᄋᆞᆺ 은것을한ᄉᆞ시 ᄀᆞ가지고잇스니

딕컨일본인 은상딕자의 심정은 싱각지안코 자긔비외나옴디로 임종ᄂᆞᆫ명사를 민들어홈부루쓰ᄂᆞᆫ셩질이잇스니 그것은 조선인에게반되ᄒᆞ야그러ᄂᆞᆫ것이ᄋᆞ니라 기타외국인ᄂᆞᆫ딕ᄋᆞ야ᄃᆞ도「모랑」(毛唐)…디넛셕부리이니 ᄯᅩᄂᆞᆫ쟝국인이나 디만닉명사를지어불으ᄂᆞᆫ 청질이만다 상하계급을논ᄒᆞ고「요보」니ᄂᆞᆫ것을 잘리회ᄒᆞ야 남의감졍을엇더ᄒᆞᆫ것을 침착ᄒᆞᆯ필요가잇ᄂᆞᆫ노라 일본인이며……

計告

本會員 … 大人 正品 … 以宿患 大正十年九月十九日 …

國民共進會 本部 謹白

於鷺梁津驛前汝矣島

競馬大會

九月二十三日 二十四日 二十五日 三日間

勝馬投票도有홈

主催 京城 乘馬俱樂部

…家의 愛用品이 되엿나…
…記의 商標를 注意ᄒᆞ라
電話 二三八四番 振替 二四八〇番

白髮 (一一七)

靑黃生

一一七、약속은무엇

나도그말을듯고도 정신업시 화자의얼골만 바라보고잇엇다

「여그 지금곳 무도를 시작하여야되여요 당신과내가 먼저춤을추어야 여러사람이 날셔 손을노으라 나도겨우 정말 신에 좀으왓나 파면니야말로 오늘밤쥬인이고 이자리에신랑이다 여러손님을위하야 무도를 안이할수업다 무도만하고보면 변수갑도 큰무되가 뒤맛치번갈나 엽얼것이다 정신일코잇슬여가안이다

이런생각을하고 나도가벼웁게 화자의허리를 안앗다 뒤나쥬는그의손이쥐고 뛰놀은는그의허리를 아고보니 지나간 사년동안의 즐겁든두사이가엇지심각이 안이나리요 하건만 나도그모든심각을 안이떠칠수업다 그리고도 류량하게 일어나는음악에 맛초아 몸파다리를 놀리게시작하엿다 만장에서 감치하는쇠리가 집이떠나가라고 일어나다 이웃고나와 화자가 그방을 한루어번돈여에는 큰무도로회리바람파갓치 일어난다

음악이끝나면 놀리도밤도급하다 화자의도기운입김은 나의입미에셔리고 나의숨은 화자의압니마에 마조친다 화자는 것버셔 못익이는것갓치숨을니힛다 그리고 을것혼사랑의눈을벗면서 나의귀에 그입술을쇠는거림을 한게시작한다

「오이고 참말 깃버요 인케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되엿지요」라고 한다 나의하는쎄르이즉말사랑에 싸혓도것갓치엿슬것이다 나는실로 사랑에바쳣다 붉갓치미온마음을가지고도 화자와사랑에 안이빠즐수업섯나 모든것이 오늘밤뿐이다이것이 이세상의 마지막이다나의마음에 조금사유를주어셔샹의 젊은신랑파갓치 사랑의말을마소보긴들 무슨밧히될것이잇스리요 나도그말을밧오

「참말도 사랑을할길리 이와갓치 결혼을한것이 안이오」

화자도 즐겁게 속삭에머어부스오면셔

「정말그러키도해요 무슨일이어쩡어되여야만 부부된보람이잇성기면 목숨까지 바릴만하지지요」하고 밤쇠나무엣쇠도밧기지안는 사랑의노래가된다할고 며옥속속 나에게다가치듯 나도그에게 밧삭다가동엿다 의도거운입집은 그의황끝갓흔머리카락을 날리인다

「목숨까지 버리고말고 마누라닭에 한번쥭엇다가 살아나지안엇소」하다가 그의눈섭을 두려워하야 말을끈쳣 「어제빈밤이 오늘 청춘어되엿스니가」하엿다 그는머옥〃 깃버하며

「그런말슴 말으셔요 당신은 마진부〃이 로인이판말슴은당초에말으셔요」

우리는 사랑의말을 쇠는거리며회리바람갓치 뛰노는무리에 엇지졈되졈어보혀요 나와참말 들어왓다 이욱고 음악쇠리가 료〃히지며 첫무도는맛칫는때 화자에게는 갓치무도하자는손이만흐므로나도화자를 그들에게맛기고 가만히빠져나왓다 밧굿해 나셔니상연한바람이 옷깃을날리며 사람그림자도붐수업섯다 나도살듯이 신선한 공긔를 흡 고잇슬지음에엽

한시를 본후는 종소리가 들리엇다 기다리고 기다렷든일수을간기시작하시고, 염두시에 돈어 밤에 벌어질 더어나그도 단하여 화자를 어방에셔 금을너어야된다 그러고 일수갑의당쇠에 쉐을어 가야된다나는 서샹스럽게 가슴이 을넝거리고 몸이떨리엿다 너가고히무도 화자가 마무도를맛추어엿노 실든놀고 사분〃여셔셔에셔나 나는실금〃수밤녀여밀어화자의셔히도왓다화자도 마치지느답에 실리도 셔웃모양으로 나를향하야밤집을옴긴나 나도쇠을고가셔 그를 사람업는데 마누라는 천일약속을실각ᄒ고잇는가」 물어보앗다 화자의얼골는 단바 깃분빗이 떠지며

「엇져그것을 닛겟셔요 누도령감이 니저신가한걸요」

나도마음약으로 깃버ᄒ며

「그런면 지금이뽁조흔때이다 으모도모르게 바져나기자」

「가자요 가요 혼자가시지말으요 자오어셔가요」라고 쥬저업시 나를지측ᄒ다 제몸이 파면을 당할줄몰으고 정말그약속을 고듸ᄒ고 잇섯슴이로나그약속이라함은무엇인가?

開放欄 投書歡迎

勞働問題의原理(續)

仁川秋岡 宋根雨

그럼으로今日의職工組合的勞働運動의目的은다만勞働條件을確立ᄒ라ᄒ에 全力을다ᄒ도록되엿은듸곳職工組合使用의第一述한바現在勞働에從事ᄒᄂ勞働者를保護ᄒ에全精力을다ᄒ도록되엿다。그러나勞働條件을確立ᄒᄂ것은同一ᄒ不變的效果를目的ᄒᄂ以外에勞働力의賣買條件을決定ᄒ에ᄂ一後面으로對ᄒ야弱者의地位를向上코져ᄒᄂ것이그의主目的이다곳資本階級과勞働階級ㄴ利害에關係에對ᄒ야職工組合의任務ᄂ勞働市場에對ᄒ勞働者의地位를有利케ᄒ며그結果로資本家相互의需要上競爭은도리혀一層勞働階級에게多大ᄒ利益이되도록힘쓰ᄂ에잇나니目的을達ᄒ기爲ᄒ야먼져勞働契約에當ᄒ야먼져勞働階級의契約을締結ᄒ여야ᄒ며이契約을締結ᄒᄂ點을認識ᄒ이그出發點이된다。이點을認識ᄒᄂ勞働階級의結果量必要케ᄒᄂ것이다然故로職工組合은職分은現職에잇ᄂ勞働者ᄉ게對ᄒ安全ᄒ條約을締結ᄒ기로시오히려就業을繼續ᄒ고잇ᄂ勞働者를爲ᄒ야그ᄂ位를他勞働者에게占領되지안토록保護ᄒ여주며또ᄂ一層安全ᄒ就業을기다리고잇ᄂ勞働者의生活을極力援助ᄒ여주ᄂ것이다。이點에셔여러職工組合이最上의勞働ᄂ間을獲得ᄒ려ᄂ爭鬪的組織은엇케든지모든個人의勞働者를統一ᄒ야團體的一致의態度를取ᄒ라ᄂ것이그目的이다然ᄒ고또勞働者가共同金庫를設立ᄒ고自由主意에依ᄒ야失業ᄒ勞働者의生計를扶助ᄒ나ᄂ것이다。職工組合이이모양으로一層勞働者를爲ᄒ야愛ᄒ고世界를開拓ᄒ려고어던境遇에對ᄒ實同盟罷業의形式을取ᄒ다。罷業組合이라고생각ᄒᄂ者가잇그런ᄃ닭에職工組合으로써同盟ᄌ이아니ᄒ다그러나此ᄂ軍隊로써社關聯鬪爭으로ᄒ고論ᄒᄂ者와如ᄒ다職工組合으로말ᄒ면同盟罷業은手段에不過ᄒ고目的은아니다。利害關係가서로反對되고서로相違되ᄂ兩者의勢力사이에ᄂ그勢力을維持ᄒ기爲ᄒ야當然히戰鬪가일어나ᄂ것이다。勞働階級에對ᄒ야職工組合은勢力組織으로ᄒ고効果的鬪的手段은同盟罷業이다그러나이手段은이에代身홀만ᄒ適當한價物이提供되ᄂ境遇에ᄂ이價物과交換될만한性質을띄엇나。이時에ᄂ同盟罷業의爭鬪이回어ᄂ지오니ᄒ고資本家와勞働者사이에勞働條件의決定이容易히解決될것이다。곳勞働時間의最高限度를規定ᄒ고標準賃銀을決定ᄒ면同盟罷業의活劇을演치안코도勞働條件의改善이잘協定된다ᄂ것이다엇지ᄒ야職工組合ᄋ勞働階級의勢力으로資本家勢力에對抗키爲ᄒ야組織된것이다然이나그目的은以上과如ᄒ나오今々지實習의美를보앗ᄃ고ᄂ홀수업다今日英國에셔ᄂ大槪이勞働者勢力이著實ᄒ貌樣이며其他各國에도이勢力이社會에相當한地位를占領ᄒᄂ形便이다。(未完)

富者의使命을促醒ᄒ(上)

黃州 文慶

發芽中에方在ᄒ우리社會에事業이許多ᄒ되 資力의旱魃이太甚ᄒ야開花ᄒ을得치못ᄒ니 廢墟의開拓이急ᄒ이甚ᄒ다期ᄒ이또ᄒ遠ᄒ다 噫라 黃金이란木은是無主의礦石으로써 勢力은엇지그리大ᄒ며 性癖은엇지그리偏狹ᄒ고 안이라其力의大ᄒ이黃金自勢가안이오 우리人間社會가與ᄒ야附ᄒ이며 黃金의其性이本是偏狹ᄒ이안이라 그를所有ᄒᄂ者의無情으로拘禁이太嚴ᄒ故이다 黃金其本性은多事ᄒ야世上에自由로히活動ᄒ고십흘리라 우리富豪ᄂ資金의活用의와그리물으ᄂ지 이져其富ᄂ意를卑見이나마 數莠의說을煩ᄒ야覺醒ᄒᄂ바잇슴을促코져ᄒ나

産業自由競爭이行ᄒᄂ現社會에在ᄒ야 技能을發ᄒ고牛腕을揮ᄒ야 多大ᄒ精神的人의肉體的勞力을費ᄒ야 蓄積ᄒ富力은이相當한報酬로受ᄒ이라 他에何人의所關이잇슬비랴 오직自意의處分이有ᄒ이라ᄒ것다 그러라同一ᄒ生ᄒ야同一ᄒ長ᄒ에或은學ᄒ고或은不學ᄒ야 學ᄒ者芳名을揚ᄒ고 不學ᄒ者用畝에發ᄒ모 是少自取의所事라 何를怨ᄒ며何를猜ᄒ리잇스랴ᄒ겟다ᄒ

每事를皮相觀ᄒ면 孰非孰是며何邪何正을認得키難ᄒ도 한번一去的 一源을案ᄒ고其裏面을解剖ᄒᄂ곳에 비로소그原因이設識될것이오 그理想이表現될것이다於此에兩人이有ᄒ니其一은學ᄒ야識ᄒ으로政界에位를占ᄒ야一國을治ᄒ고 一人은不學ᄒ야無識ᄒ으로唯々服從ᄒ은이學不學의自取分點이라ᄒ나嘗者의上됨은是何故이며愚者의下됨은是何故인가 그皮想은오직力의有無所致다ᄒ겟스나 智力이有ᄒ도이自有ᄒ이오 智力이無ᄒ야도이自無ᄒ이거늘 何故로人을治ᄒ며人의게被治되리오 是實은社會의共存的安全을計ᄒ기爲ᄒ야 社會의認ᄒ바制度와力이有ᄒ일섀라 然則其位에居한者社會의公益을念치안이ᄒ고 其權을濫用ᄒ야私利를擅圖ᄒ면如何ᄒ가 이에其位를容認한社會ᄂ 其責을盡치안이ᄒᄂ罪로其位를還奪乃已ᄒ것이다

原始의人類生活은天然果實로써生을充ᄒ엿스나 人種이繁殖과慾望의擴張等은이天然物로써滿足지못ᄒ야 許多의生産을要ᄒ고 一人의慾ᄒᄂ物을 一人이能히盡産치못ᄒ야 이에分業이生ᄒ야有無를相通케되얏다 人文의發達을조차人間은漸次豪華ᄂ生活을慾望케되고 이慾望을充足식히ᄂ産業의發達을促ᄒ얏다 産業의發達은漸次大規模의企業을要求ᄒ에至ᄒ야 그企業의完善을圖ᄒ에ᄂ 그産業을才能이具有한企業家의意思되ᄂ 經營支配ᄒ을要ᄒ으로 이에그特權을容認ᄒ게되얏다 即企業的能力이優越ᄒ者로ᄒ여금大規模의企業으로需要品을多産ᄒ야 一消費者의慾望을充足케ᄒ려ᄂ意이엇나 是가今也有産階級을生ᄒ에至ᄒ階梯가되얏다ᄒ겟다

富가集中됨은 政治上中央集權이必要ᄒ과如히 人의慾望을充足식히고져ᄒᄂ本能으로브터말미암오 生産을擴張改善키爲ᄒᄂ産業發達上自然의理勢를從ᄒ야定한制度이다 即富를有ᄒᄂ者ᄂ 社會의公益을爲ᄒ야이事業의盡力할責任을負ᄒᄂ下에資本을所有ᄒ이다 안이富의委託을受ᄒ이다 奉公의職에任ᄒ이라 然則若그의責任을盡ᄒ야그의義務를行치안이ᄒ면 社會ᄂ 公權濫用의官吏를罷任ᄒ과갓치 其富力을肯定ᄒ수업나 官吏가國家의公僕인同時에 富者ᄂ社會의公僕이다 官吏가國家에忠誠ᄒ으로도榮光을삼거든 富者ᄂ社會에貢獻ᄒ으로名譽를삼을것이다 大統領權限이大ᄒ으로貴ᄒ이안이라 國家에輸誠ᄒᄂ最大勞働者됨으로榮高ᄒ고 大富豪가金錢을多有ᄒ으로名譽가안이라 社會에貢獻ᄒᄂ最大盡力者됨으로榮貴ᄒ것이다

各地新聞

▲江原

通川敎育會의消息

江原道通川郡은世界有名ᄒ金剛山麓에接近한東海沿岸에位ᄒ야人口四萬餘를有ᄒ고面積五十三方里에達ᄒ며沃土의廣野各處에散在ᄒ고一方으로延長十七里의海岸을擁ᄒ야良港이間在ᄒ으로水陸의産物은實로豐富ᄒ도다就中敎育熱도相當히膨脹되야三個의普通學校와五個의私立學校등維持ᄒ게되얏스며京城其他其地에留學ᄒᄂ學生도五十餘名에達ᄒ現狀이라然이나郡內의中等敎育機關及勞働子婦女子의敎育機關이無ᄒ을恒常遺憾으로여기더니該地方有志靑年石鍾旻、朴昌玉、金瑳得、元澈其他諸氏의發起로通川敎育會라ᄂ團體를組織ᄒ야各種敎育事業의經營을目的으로ᄒ고其第一着의事業으로夜學會를開設ᄒ얏ᄂ듸其組別及科程은下記와如ᄒ며講師ᄂ各當職員及學校敎員의게囑託ᄒ얏고聽講者ᄂ各科를通ᄒ야數百名에達ᄒ얏스며期間은五個月豫定이러더라

中等科 甲班 數學、理科、地理、歷史、法制、經濟
乙班 算術、日語、理科、地理、歷史
初等科 男子部 朝鮮語、日語、修身、算術
女子部 朝鮮語、修身、算術

▲間島

楡樹侍靑創立總會

支會創立式에參席키爲ᄒ야去月二十日龍井村을出發한間島侍天敎靑年會第二團一行三人은八月二十一日延吉縣尙義社楡樹川에到着ᄒ야一夜를休養ᄒ後李明禮金芝泰趙鉉學外諸氏의發起로翌日下午一時에侍天敎靑年會創立總會를該地敎會堂內에開ᄒ바一般正肅ᄒ心告祈禱 李文鍾의本會趣旨說明이有ᄒ後臨時會長金得星氏가登席ᄒ야規約을朗讀ᄒ고入會手續을會中에通告ᄒ미外을當ᄒ야入會者가七十餘名에達ᄒ다一般의公選으로任員을選定ᄒ니會長李明禮副會長金芝泰書記成基和會計張中鳳禮文藝部長趙鉉學體育部長李明篤社交部長文鎭英財務部長金得星顧問李圭顯宋錫默其他議員及幹事의選擧와前進方針에對ᄒ協議ᄒ고本會로브터出張한李俯坤氏一行의熱誠ᄒ說明과來賓諸氏의祝辭가有ᄒ後同三時에閉會ᄒ엿다더라(間島)

三道侍靑創立總會

間島和龍縣明新社三道溝靑山里에서난鄭光華康允鳳金尙伯外諸氏의熱心努力ᄒ結果로去月二十六日下午一時에侍天敎靑年會創立總會를該地敎會堂內에開ᄒ바一般의正肅ᄒ心告祈禱와柳德鉉氏의本會趣旨說明이有ᄒ後臨時會長趙華鳳氏가昇席ᄒ야規約을朗讀ᄒ고入會手續을會中에宣言ᄒ에互相悅從도爭先入會者百有餘名의達ᄒ야前無ᄒ盛況을呈ᄒ얏스며支會創立을後援키爲ᄒ야間島宗務支部로부터出張ᄒ趙昌淳氏一行의說明及來賓諸氏의祝辭가有ᄒᄃ仍히鄭東鎭君의司會로講演會를開ᄒ니滿場의歡迎ᄒᄂ拍手聲은天地를振動ᄒ야山鳴谷應ᄒᄂ此際에沉默ᄒ姿勢와嚴正ᄒ氣像으로徐々히登壇ᄒᄂ辯士柳德鉉氏ᄂ「吾人의活動」鄭昌洙氏ᄂ「靑年의注意」로長說舌을揮ᄒ야實ᄒ無限ᄒ感動과自覺的決心을與ᄒ고喜悅이充滿ᄒ가운듸同四時에閉會ᄒ얏ᄂ듸當選擧된任員은左와如ᄒ다더라

會長鄭東鎭、總務鄭光憲、幹記鄭光華、會計李樁柏、布敎部長鄭文汝、文藝部長李泰屹、體育部長康允鳳、社交部長趙華鳳、議事部長金尙伯

顧問 梁士俊、李永祿、姜虎會、鄭濟翊、李君熙、康寶洙、朴春一。

流水侍靑創立總會

間島延吉縣崇禮鄕流水河에셔ᄂ金振鑾李庭奎金圭復外諸氏의發起로去月二十四日下午一時侍天敎靑年會創立總會를該地敎會堂內에開ᄒ바一般의正肅ᄒ心告祈禱와金圭復氏의本會趣旨說明이有ᄒ後臨時會長白光祿氏가登席ᄒ야規約을朗讀ᄒ고入會手續을會中에宣佈ᄒ의當席에入會ᄒ者八十餘名에이르ᄂ盛況을呈ᄒ얏나一般의公選을依ᄒ야任員을選擧ᄒ니會長金振鑾總務李庭奎書記李庭奎會計金儀鳳布德部長崔光祿社交部長李炳成議事部長金圭復顧問吳桂潤梁士弘白涂其他諸事員以各部幹事若干人을選擧ᄒ야諸般事項을處理ᄒ李炳坤李明禧兩氏의懇說明과來賓諸氏의祝辭가有ᄒ後同三時半에閉會ᄒ엿다더라(間島)

平壤小言

우리平壤엇던말人감은말을ᄒ되近日에ᄂ敎派에서무슨之〇이란百餘頁의大雜誌을發行ᄒ얏ᄂ듸그內容如何ᄂ불를이업셔알수업거니와▲何如間雜誌其四千年來雜誌란名稱을가진冊子를發行ᄒ기ᄂ그것이嚆矢다ᄒ지니엇지平壤을爲ᄒ야慶賀ᄒ바이안이리오▲그러나雜誌事業이란그러케容易ᄒ것이안이다그紙面에執筆者ᄂ된소리ᄒ지만은그것이直接又ᄂ間接으로世道人心에不少ᄒ關係가되ᄂ것이다▲讀者의意見을迎合키爲ᄒ야是를非ᄒ못ᄒ며自己의獨斷으로直言曲이리ᄂ못ᄒ지니徹底ᄒ觀察과公正ᄒ理解로批判ᄒ야社會公衆ᄂ如何ᄒ程度의影響을밋치게ᄒ리라ᄂ自信이업스면當初으雜誌事業에着手치안이할것이다▲또ᄂ營利事業이안이기ᄯ문에制千한資本으로ᄂ어렵고엇지나昨年以來朝鮮의大小二十餘種이엿지만은或은오ᄅ업서지고或은休刊되업ᄂ者々等ᄂ三四個月에로빈에發行되ᄂ것뿐이요每月에계속發行되ᄂ것은宗敎團體에셔經營ᄒᄂ것밧게업나▲그原因은첫재資本이업고둘재文學이不足ᄒ고셋재讀者가업ᄂ것갓다니셋가지업ᄂ外에相當한經營者가업다▲雜誌에關ᄒ專門的知識은勿論、常識도업ᄂ者가一時衝動心으로무슨雜誌看板을걸엇다가第一號又ᄂ第二號를ᄂ보고ᄂᄒ지부지업서지ᄂ것이普通이다▲局外로셔보면二三千部ᄂ때ᄀ리팔릴듯ᄒ지만은一個月後에實際에들어보면만히팔닌데라도五十部가넘기어렵나ᄒ다▲그런나經營者ᄂ그것을絶對秘密에부치고五千이니七千이니ᄒ야二三號發行할資本을가지고어리석은算盤질을ᄒᄂ者가만흔모양인되▲今般平壤에셔發行ᄒᄂ雜誌ᄂ果然相當ᄒ經營者도잇서金錢도만코文學도豐富ᄒ고讀者도만흘ᄂ지疑問이도다▲이런말人감군의말이ᄯ올다고ᄂ못ᄒ겟지만은엇지던參考거리ᄂ될것이야

社告

今般元山支局의事務를一層刷新擴張키爲ᄒ야前支局金鎬·金泳夏局員全部를一切解任ᄒ고更히左와如히位置變更과任員改選ᄒ얏스오니僉位ᄂ照亮ᄒ

支局位置 元山府南村洞百番地
取扱所位置 元山府南村洞半島醫院 (電話五二四番)
局員職氏名
支局長 朴載益
總務兼記者 徐成杓
顧問 安廷協
同 李秉均
同 安南奎

朝鮮日報社

今般平壤支局事務를一切刷新키爲ᄒ야前支局朴泰成及局員全部를解任ᄒ고更히位置와局員을如左選定ᄒ얏사오니僉位ᄂ照亮ᄒ

支局位置 平壤下水口里二五六
局員職氏名
支局長 金根成
總務 崔泰英
記者 李泰奉
同 劉永德
販賣部長 邊鉉洙

朝鮮日報社

本支局記者趙泰說과李秉賢氏ᄂ形便에依ᄒ야辭任ᄒ얏사오니一般讀者諸位ᄂ照亮ᄒ심을望

朝鮮日報 義州支局 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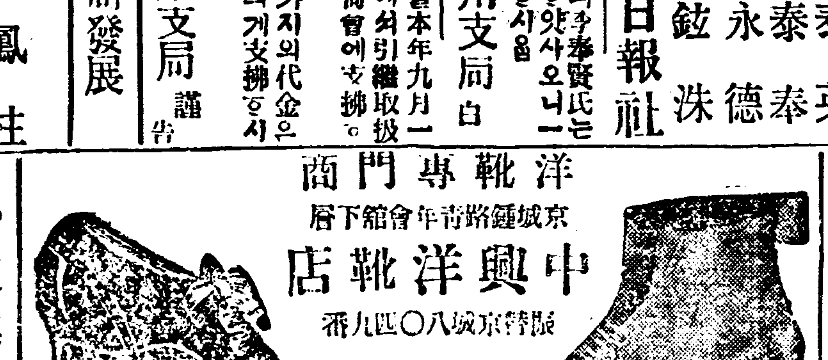
本報金泉支局事務를本年九月一日부터金陵靑年會에셔引繼取扱ᄒ오니本報代金을同會에支拂ᄒ심을望ᄒ

但本年八月末日外지의代金은前支局長裴東烈의게支拂ᄒ시압

朝鮮日報 金泉支局 謹告

祝光州支局發展
光州松汀里 中樞院參議 朴鳳柱
靈岩郡守 宋元燮
靈光郡守 李思弼

小使募集
年十四歲以上十六歲々지의通常卒業生으로希望者ᄂ自筆履歷書를가지고本商會로來同ᄒ시오
京城鍾路十字街電車分叉點 有田또락구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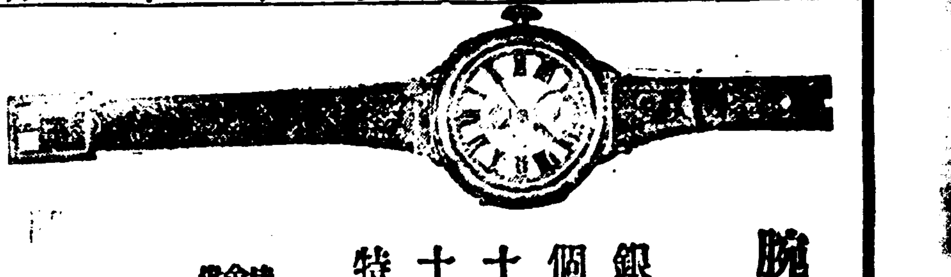
洋靴專門商
京城鍾路靑年會館下層
中興洋靴店
振替京城八〇四九番


여름 심한 더위 쇼화불량 ᄒ데도 령신환이 제일
沈香靈神丸
定價 十九入一匣十錢 八十九入一匣 二十匣入一箱
本舖 高詩堂藥舖 京城鍾路四丁目二十四番地 振替口座京城六〇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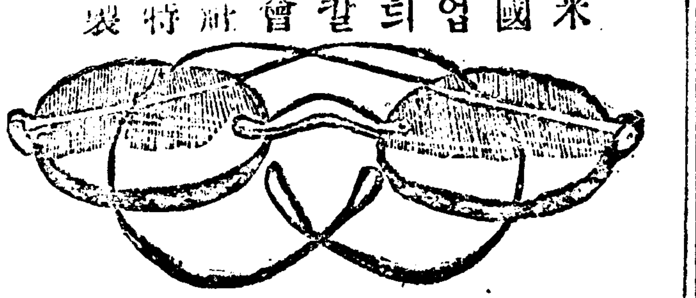
雲球惟一 消化藥之大王은

入札廣告
全南谷城郡梧谷面鳳鳥所在
一、松木約一萬五千株
直徑五寸乃至一尺五六寸 長十五尺乃至六十尺 其外雜木及稚松도含ᄒ
右賣却ᄒ希望者ᄂ大正十年十月三十日當宗中에入札ᄒ이可ᄒ 詳細ᄂ來談ᄒ시압
大正十年九月十五日
全南谷城郡梧谷面梧枝里 安氏宗中

九月十六日正午부터 全部差換
實寫 朝序
一、喜劇 덩뷔엿다 全一卷 米國카나비一社
에더쓰、로바아드演
二、人情劇 偽緊 全五卷 米國유니버一삼社
第三回 連續一大活劇 肉彈의響 全十五篇三十卷內 米國유니버一삼社 바이다그라ᄅ후演
第拾篇 術中에陷ᄒ
第拾壹篇 可恐ᄒ船
第拾貳篇 火山의餌食
優美館 電話二三六番


腕卷時計新着
瑞西國製 時間正確堅牢
銀腕卷치마栗實石十五個入特價金十五圓
十八金腕卷치마栗實石十五個入特價金四拾圓
時計各種 金銀眼鏡 賞金牌品 商
京城鍾路二丁目六番地 普信堂時計舖
主 玄錫柱 電話八八三番 振替京城一八五一番

セニウ石鹼 세니와석험

米國업틱칼會社特製

金張新着
五年責任保險金張眼鏡 三圓五十錢
十年責任保險金張眼鏡 四圓五十錢
廿年責任保險金張眼鏡 五圓五十錢
廿五年責任保險金張眼鏡 六圓
無體眼鏡은各一圓式더ᄒ
近眼無體度數玉子 自一圓五十錢 至四圓五十錢
中國製水晶平面玉子 自四圓五十錢 至六圓五十錢
同無度玉子 自六圓五十錢 至十二圓五十錢
眼鏡專門 星眼堂 京城鍾路二丁目二五番地 振替京城七八六一番

登錄 認可 (特許)
數百年以來世々秘傳之神方
京孝橋趙家有名製造之膏藥
趙高膏藥
本舖 京城府禮智洞百七十九番地
天一藥房

賣藥은需用家에信用ᄒᄂ藥을求ᄒ치아니ᄒ고廉價者를割引ᄒ면上代賣ᄒ면顧家의取引이斷切됨은自然之理이올시다趙膏藥은到處洋藥店漢藥局雜貨商界에分賣店을設ᄒ고販賣케ᄒ오니購買時此藥封皮를注意使用ᄒ시옵

▲主治効能▼
●諸般腫瘍●疥瘡●久瘡●乳腫●頭腫●癰疽●諸般瘀血●肩胛痛等症●一切無名腫毒●發時貼付則中心에消毒되며自治되고成膏後에뭇지안키도外에紅暈은漸々消却ᄒ고中에去液生新이速々히되여完合케ᄒᄂ特別効能이有ᄒ名藥이며家庭에셔治療ᄒ기便利ᄒ옵니다

▲定價表▼
大包 金二十錢
中包 金十錢
小包 金五錢
以上百包式을箱子에入ᄒ야 到處洋藥店漢藥局雜貨商에서分賣ᄒ

製造本舖……天一藥房 京城禮智洞一七九番地
蔘茸唐草乾材藥局
電話三一三〇番 振替二一七番

金
金代引換方法
金銀細工製造物品
京城南大門通二丁目一五〇番地 電話一三八番 振替京城六〇〇一番
信行商會
精選迅速酬應은本商會의生命

學生帽子專門
製造都散賣商
本商會에ᄂ學生帽子各種을專門으로製造ᄒ와都散賣ᄒ옵ᄂ바同業者注文에ᄂ特別割引酬應ᄒ옵고一二個散賣에도都賣價格으로提供ᄒᄂ이다
京城府公平洞六十二番地
廣昌商會

身體ᄂ不可不健康
大力丸
身體ᄂ萬事之本이니不可不强健이로다……然則身體에强健을何에求홈이可ᄒ고……此ᄂ經驗者ㅣ多ᄒ니必히大力丸에問할지니라……ᄒ得策에金言이오
(主治効能)
○壯筋補血 ○氣虛血枯
○夜夢遺洩 ○飮食不化
○先天不足 ○腎氣不足
○精神困倦 ○面黃骨瘦
○神經衰弱 ○陰虛火動
定價
壹個月分 四圓五十錢
貳個月分 八圓五十錢
參個月分 十二圓

京城義州通二丁目六番地
大力丸製造本舖
洪濟堂大藥房
主 李敏洪
電話二六五四番 振替口座京城五八六番